

鄉土史研究論文集(I)

葬食虎

金剛山 著



太白文化院
附設 太白鄉土史研究所

虎食葬

金剛山著

太白文化院

附設 太白郷土史研究所

虎食葬 / 目 次

머리말

I. 虎 食	8
1. 범	10
2. 범의 被害	12
3. 虎患의 事例	14
4. 虎食塚의 分布	24
5. 虎食과 宿命論	33
6. 佺鬼論	34
7. 범과 土俗信仰	39
8. 虎食과 팔죽	47
II. 虎食葬	51
I. 序 論	51
2. 遺軀의 發見	53

3. 火 葬.....	55
4. 돌무덤.....	56
5. 시 루.....	65
6. 가 락.....	78
7. 結 論.....	82

Ⅲ. 風水地理說이 虎患에 미치는 影響 84

1. 風水地理說의 基本概念.....	84
2. 범의 習性.....	85
3. 虎患터의 類形.....	85
4. 虎食터가 明堂이다	86

Ⅳ. 虎患의 克服 90

1. 虎患의 豫防.....	90
2. 범사냥.....	94

우리나라는 山이 많은 곳이다. 國土의 대부분이 山岳으로 되어 있고 坪野地帶는 적은 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坪野地帶에 모여 살고 山岳地帶에는 火田民들의 후예들이 살고 있다.

山岳地帶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劣惡한 생활조건으로 항상 貧困하며 自然과의 싸움으로 늘 불안정된 생활을 하여 왔다. 특히 산악지대에는 무서운 猛獸들이 많아 자주 사람과 마주쳐 피해를 주었는데 그 가운데 범은 인간에게 최대의 敵이었다.

太白山脉의 母山인 太白山을 中心으로 사방 2~3백리 되는 지역 안에는 예로부터 火田民들이 많이 살았었다. 그들의 생활과 풍습을 찾아 산속 마을을 답사하던 가운데 太白山을 中心으로한 수 백리 지역 안에 虎食葬이란 독특한 葬禮風俗이 있었다는 村老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虎食葬이란 범이 사람을 잡아 먹고 난 후에 남긴 遺軀를 거두어 葬事하는 것을 말한다.

범은 사람을 잡아 먹을때 몸뚱이와 팔다리는 모두 먹고 머리만 남겨 둔다고 한다. 유족들이 그 머리를 발견하고는 그 자리에서 火葬을 하고 그 위에 돌무덤을 쌓고 그 위에 시루를 얹어 놓으며 그 시루 구멍에 가락을 꽂아 놓는 특이한 形態의 무덤(虎食塚)을 만드는 것이 虎食葬禮法이다.

범이 사람을 물고가서 잡아 먹은 곳을 虎食터 혹은 虎嚙터라고 한다. 다른 곳에 비해 太白山地域에는 虎食塚의 分布度가 높은 地域으로 아직까지 그 遺址가 남아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고, 이를 정리하고자 마음 먹었다.

이름 없이 죽어간 많은 數의 사람들의 영원한 幽宅인 虎食塚의 原形을 記錄으로 남김으로써 先人들의 生活觀과 信仰觀, 運命觀 등을 엿볼 수 있으리라 본다.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山間奧地의 사람과 범의 먹히고 잡히는 처절한 숨은 이야기는 先人들의 原初의인 삶의 裏面을 보여주는 것이다. 지금은 범이 滅種되었다 하여 그런 일이 없으니 그것은 하나의 흘러버릴 이야기로서 一考의 가치도 없는 것이라고 할지 모르나 거기에는 사람들의 처절하다 못해 승고한 삶이 숨어있다.

虎食터는 全國적으로 分布되어 있으나 산악지대에 집중적으로 퍼져있다. 여기에서는 太白山을 中心으로 太白, 旌善, 三陟, 寧越, 東海, 奉化, 蔚珍 등 7개 市郡을 조사 대상지역으로 삼았고 여타지역은 위 지역과 大同小異하리라 본다. 또한 이 글에서는 人間과 범의 여러가지 이야기를 담았고 風水地理說과 虎食의 聯關性, 虎食葬의 研究와 범에 대해 一面 崇拜하며 一面 對抗한 人間의 兩面性 등에 대해 考察하여 보고자 한다.

I. 虎 食

범

범의 被害

虎患의 事例

虎食塚의 分布

虎食과 宿命論

俚鬼論

범과 土俗信仰

虎食과 팔죽

I. 虎食

虎患은 人畜이 범에게 당하는 患難을 말하고 虎食은 사람이 범에게 잡아 먹히는 것을 말하는데 虎食은 虎飢 또는 虎噬이라고도 한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무서운 猛獸는 범이다. 때문에 예로부터 범에 대한 피해가 極甚하였다. 무기가 없는 人間에게 범은 宿命的 먹이 사슬의 專橫者이며 神이나 다른 없는 절대적 존재인 것이다. 그러기에 民間에서 범을 山神으로 숭배하기도 하고 또는 山神의 使者로 보는 것이다. 그러한 범을 사람은 天손으로는 도저히 당할 수 없으며 磷光이 흐르는 범의 눈빛만 봐도 기절하고야 만다. 山岳이 많은 우리나라에는 범이 많았고 그로인해 범에게 당하는 피해가 많은 곳이었다.

中國의 大文豪인 魯迅은 우리나라 사람을 만나면 먼저 범 이야기와 虎患에 대해 물었다고 하며 舊韓末 프랑스 記者가 우리나라에서 記事를 취재하여 프랑스 新聞에 掲載된 挿畫 가운데 虎患에 대한 그림이 상당수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니 우리나라에 범의 피해가 얼마나 많았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山岳이 많은 나라이다. 그러다 보니 범이 서식하기 좋은 환경을 가진 곳으로 自然 범에 대한 惡害가 많았고 잡혀 먹히는 사람이 많았다. 虎食되어 간 곳은 대개가 산능선이 끝나는 곳 또는 고개마루 등이 많고 같은 山 밑이라도 別관에서는 虎食되어 간 예가 적다. “범에 물려갈 놈” “범이 물어갈 놈”이라는 惡談이 있다. 그만큼 범이 무섭기에 虎食을 겁내했기에 그런 말이 나왔으리라. 柳레라를 虎列子라 한다. 범이 얼마나 무서우면 천염병 이름에도 들어 있을까. 仁旺山에서 범이 나타나 서울의 백성들을 물고 갈 정도면 산골마을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虎食되어 갔을까.

太白山脉을 中心으로 한 山間마을의 虎食되어 간 實態를 조사하여 범에 대한 民間의 信俗과 事例, 分布 등을 밝혀 보며 사람과 범의 宿命的 關係를 알아 본다.



虎患

일본이 한국인에게 무기 소지를 금지한 다음부터 사냥꾼의 손아귀를 벗어나게 된 호랑이들이 한국인의 공포의 대상이 되었다.

일본은 한국인이 무력 폭동이라도 일으킬까봐 한국에 무기가 수입되는 것은 물론 한국인의 무기 소지를 금한 것이다. 그러나 이 조치는 대단히 끔찍한 예기치 못한 사태를 불러들였다. 사냥이 불가능해지자 육식을 즐기는 맹수들의 수가 급격히 증가해서 한국 전역에서 피해를 끼쳤다.

들관에서는 거의 매일같이 늑대와 호랑이가 출현했기 때문에 밤늦고 여행을 떠나기도 힘들 지경이었다. 어떤 마을에서는 심지어 며칠 동안 호랑이가 굶이지 않고 술물하며 33명이 공격을 받기도 했다.

화보에서도 큰 호랑이 두 마리가 민가로 뛰어들어와 남자를 물고 어린 아이를 새기는 모습이다.

르 프티 주르날 1909년 12월 12일

1. 범

범은 고양이과 動物 가운데 가장 큰 猛獸로 몸 길이 3m, 몸 무게 300kg가량되는 巨軀이다. 범은 크게 줄범(虎)과 돈범(豹)이 있는데 우리민족은 이들 범을 예로부터 山神의 使者로 보거나 山神 그 자체로 보아 몹시 두려워 하였다.

우리 民族은 虎를 호랑이라고 부르기 보다는 범이라고 부르기를 좋아한다. 호랑이 하면 줄범만 指稱하는 말인데 반해 범은 줄범(호랑이)과 돈범(표범)을 함께 부르는 말이다. 그래서 호랑이나 표범 등을 한 種類로 보고 그것들을 확실히 구분지어 부르기 보다는 「범」하면 호랑이나 표범 모두를 일컫게 되는 것이다. 때문에 民間에서는 호랑이나 표범이나 시라소니 등을 모두 범이라고 通稱하며 그것들을 種子가 다른 것으로 보지않고 같은 種으로 본 것이다. 예를 든다면, 범은 새끼를 낳으면 새마리를 낳는데 처음 것은 줄범(호랑이)이고 그 다음 것은 돈범(표범)이며 세번째는 개갈가지(시라소니, 삼가지)라고 믿었다. 또 다른 예로는 줄범(호랑이)은 솥늬이요 돈범(표범)은 압늬으로 보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 전통 民畫에 보면 줄범과 돈범이 함께 있는 그림이 많은데 이것은 앞에서 말한 것 처럼 한 어미의 새끼로 보거나 압수의 관계로 보는 觀點에서 그린 것이기 때문이다. 줄범(호랑이)은 갈범 혹은 쉼범으로 부르기도 하고 돈범 혹은 미나범은 표범을 이르는 말이며 시라소니는 개갈가지 또는 갈가지, 삼가지 등으로 부른다. 호랑이란 말은 虎狼이에서 온 듯하며 漢字표기인데 반해 범은 순수 우리말이다.

우리의 옛날 이야기에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이야기가 있다. 고갯길에서 떡장수 아저머니를 잡아 먹은 범이 여인의 옷을 입고 여인의 집에 가서 아이들에게 임마라 속이고 막내동생을 잡아 먹는다. 남은 오누이는 마당의 큰 나무 위로 쫓겨 올라간다. 범이 어떻게 올라 갔느냐고 물으니 오누이는 참기름을 바르고 올라왔다고 한다. 미끄러져 설레한 범은 다시 어떻게 올라갔느냐고 물으니 칠없는 동생이 도끼로 찍으며 올라 오면 된다고 했다. 범이 도끼로 나무를 찍으며 올라오니 오누이는 하늘에 밧이 동아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 해와 달이 됐다는 것이다.

너무나 널리 알려진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에서 처음 범이 참기름을 바르고 올라 오다가 미끄러진 대목은 줄범(虎)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나중에 도끼로 나무를 찍어 홈을 내어 올라오는 대목은 돈범(豹)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줄범(호랑이)은 나무에 오르지 못하나 돈범(표범)은 나무에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범이 물어 갔다고 하면 호랑이인지 표범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 것도 우리민족에게만 있는 일이다. 太白山을 中心으로 한 인근지역의 村老들을 만나보면 줄범이나 돈범은 같은 종류 또는 압수 관계로 말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으로 이 글에서 범이라고 하면 줄범(호랑이)과 돈범(표범)을 함께 指稱하는 말이며 굳이 구분하여 부르지 않겠다. 왜냐하면 이들 두 종류의 범이 사람을 害하는데 어느 쪽이 사람을 잡아 먹어도 그것을 虎食이라고 하며 現地의 村老들도 그것을 구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群虎圖(이밀레박물관 소장)

줄범과 돈범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그림이다. 여기서도 줄범과 돈범은 압수 관계 또는 한 형제의 의미가 있고 머리는 돈범이고, 몸체는 줄범인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만 봐도 선인들은 호랑이와 표범을 굳이 분리해 부르지 않았음을 알겠다.

2. 범의 피해(虎患)

朴趾源의 虎叱에 보면

「범은 사물의 이치에 통달하여 현명하며 文武를 겸비하고 父子間의 情愛가 돈독하여 지혜롭고 인자하고 박식하여 용맹스러우며 몹시 사나워 천하에 당할 자가 없다」(虎聖文武慈孝智仁雄勇壯猛天下無敵)

라고 했다. 과연 범은 百獸의 王으로 거칠것이 없는 절대적인 존재로 모든 動物과 사람에게 共同的 敵인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무서운 猛獸는 범이고 그 이상가는 猛獸는 없다. 그 범에게 우리는 많은 피해를 입으며 살아왔는데 우리나라에는 범이 유난히 많았다. 그 이유는 山岳이 많아 범이 서식하기 좋은 환경을 가진 곳이기 때문이다.

五洲衍文長箋散稿에 보면

「우리나라의 시골 산간에는 범의 患難이 많아 밤에는 감히 밖에 나가지 못하고 곡식을 거두어 들이기도 힘들다. 속칭 虎噬이라 하여 범이 사람과 가축을 잡아 먹으니 백성들이 안심하고 살 수가 없다」(我東鄉谷多虎豹之患夜不敢出麥當不採俗稱噬食人畜民不聊生)

라고 했으니 길을 가다가 밤을 매다가 나물을 뜯으러 가거나 또는 나무하러 가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범에 잡아 먹혔겠으며 집에서 돌러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을 것인가? 서울 근교의 仁旺山에서 범이 출몰하며 사람을 물고 갈 정도면 太白山脉의 깊은 산골에서는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름없이 소문없이 속절없이 죽어갔겠는가.

사람은 동물 가운데 가장 느리다. 범은 동물 가운데 가장 무섭고 날세고 힘이 센 짐승이다. 그렇기에 범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사람을 잡아 먹을 가능성이 있다. 무기없는 사람에게 범은 절대적이며 神과 같은 존재인 것이다. 磷光이 흐르는 범의 눈빛만 봐도 실신할 정도로 속수무책이며 숙명적인 존재인 것이다.

增補文獻備考에 보면 百濟 溫祚王 13년에 다섯마리의 범이 城안으로 들어온 記錄이 있으며 高麗 顯宗 11년 9월에는 범이 城에 들어와 사람을 물어 傷하게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朝鮮王朝實錄을 보면 太宗 2년에 경상도에서 범에게 물려 죽은 자가 수백명이라는 기록이 있고 中宗 19년에는 황해도에서 범에게 傷한 者가 40여명이나 된다고 하였으며 英祖 19년에는 평안도 강계에서 20여명이 범에 물려 죽었다고 記錄되어 있다. 또한 英祖 28년에는 범이 경북궁 후원에 들어 왔으며 同 30년에는 경기도 지방

에 한달 동안 범에게 물려 죽은 자가 120여명이나 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범에 대한 피해가 극심하였으며 민간에 무기를 소지하지 못하게 하여 그 피해는 더욱 늘어났었다. 文獻에 나타난 사실은 氷山의 一角도 안되는 사례이며 실제로 소문없이 죽어간 山間僻地의 백성들의 죽음은 너무나 많았을 것이다.

現在 調査한 바로는 太白山脉을 中心으로 퍼져간 산기슭에 위치한 모든 山間마을에 虎患의 事例가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은 虎食터가 分布되어 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범에게 禍를 당했으면 범이 이땅에서 사라진지 수십년이라 하는데 아직도 그 기억이 생생한듯 전해주는 村老들의 이야기는 과거의 傳説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숨쉬는 戰慄의 事實로 느껴지는 것이다.



범의被害

두손을 묶인채 끌려가던 두명의 남자가 갑자기 나타난 범 덕분에 도망칠수 있었다. 이들은 평소에 山神을 잘 믿었던가 보다. 이렇듯 범은 틈만 있으면 사람을 공격하는 공포의 대상이었다.

(프랑스 르포디 주르날紙 게재)

3. 虎患의 事例

太白山脉을 中心으로 太白, 旌善, 寧越, 三陟, 奉化 등과 其他 地域에서 범에게 물려 가거나 피해를 입은 事例를 調査하였다. 重複이 되는 사례는 빼고 되도록 다양한 虎患의 사례를 수록하였다. 그 속에는 우리 조상들의 思考를 알 수 있는 宿命的인 來世觀과 信仰觀을 엿볼 수 있으며 앞으로 씨갈 전체 증거리에 참고가 된다. 또 한 이 사례는 거의가 40여년전에 일어난 이야기로 살아있는 老人들에게 들은 이야기다. 밀리는 100년전 가깝게는 40여년 전의 일이다.

〔事例 1〕 태백시 백산 닭으실 虎食

번지당골의 祭堂에서 山神祭를 올리고 犧牲物(소)을 마을 사람들이 나누어 가졌다. 닭으실에 살던 吳氏가 分配받은 고기를 집에 가져와 작다고 마당에 집어 던졌다. 개가 그 고기를 먹었다. 그 날밤 그 집 머느리가 범에 물려 갔다. 누군가가 말했다.

「같이 分配받은 희생物(소고기)을 개에게 주다니 山神의 노여움을 사서 머느리가 대신 虎食되어 갔어」

라고.

〔事例 2〕 태백시 동점 방터골 虎患

방터골에 살던 동촌네 할멈(103세, 작고)이 부엌에서 저녁밥을 짓고 있었다. 갑자기 범이 나타나 집에 기르던 개를 물고 가는 것이었다. 할멈은 얼른 개 뒷다리를 잡고 “차라!” “차라!” 소리치니 범이 놓고 가버렸다. 그날밤 여나른살 먹은 아들이 갑자기 발광을 하며 악을 쓰더니 죽어버렸다. 아들의 목에 범이 물은 것 같이 검은 반점이 범의 이빨자국 처럼 나타나더니 죽은 것이었다. 이것은 山靉(범)이 먹을 것을 가져 가는데 방해한 벌이라는 것이다. 죽은 개는 돌담 속에 묻었는데 밤에 범이 와서 담을 헐고 가져갔다.

〔事例 3〕 태백시 창죽 장군 화장터

조대장터골 어귀에 金氏 姓을 가진 힘이 壯士인 사람이 살았다. 가을에 갈판을 할 때 40여명이 풀을 저도 혼자서 하루종일 그 많은 풀을 다 썰어 버리는 怪力의 소유자

였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그를 김장군이라 불렀다. 김장군은 눈썹이 유난히 길었다. 옛말에 눈썹이 길면 虎食 당해갈 相이라는 말이 있다고 사람들이 말하니, 크게 웃으며 그런 소리말라 하였다. 그날 낮에 까마귀가 몹시 울었다(까마귀가 울 때는 범이 있다고 한다. 또는 범은 까마귀를 데리고 다닌다고도 함). 그날 김장군은 집 앞 개울가에서 나무를 하다가 허리띠를 풀어 해쳐놓고 느려지게 낮잠을 자고 있었다. 갑자기 범이 나타나 앞밭로 金將軍의 배를 찍어 당겼다. 놀라 일어난 김장군은 범과 마주 영치 붙어 싸웠다. 범이 한번 넘어지면 김장군도 한번 넘어지고 뒤엎겨 구르며 소리치며 싸웠다. 근처에 있던 아내가 달려와 보니 남편과 범이 한 덩어리가 되어 뒹구는 것이었다. 김장군은 아내에게 빨리 낮이나 도끼를 좀 먼저 달라고 했다. 그러면 범을 죽일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여자는 겁에 질려 옆에 있는 낮이나 도끼를 집어 던지지 못하고 밀리서 부들부들 떨다가 옷 마을로 사람들을 부르러 가는 것이었다. 김장군이 소리치며 사람 데리러 갈 것 없이 낮이나 도끼나 아무것이라도 날 던져 주면 된다고 악을 썼다. 그러나 여인은 그것을 못하고 옷마을로 구원을 청하러 가고 말았다. 옷마을로 달려간 여인은 마을 사람들에게 남편이 범하고 싸운다고 하였다. 마을 사람들이 동원되어 낮과 도끼 창 등을 들고 달려왔다. 그러나 그때는 범과 싸우다 힘이 빠진 김장군이 다 물어 먹히고 머리만 남은 뒤였다. 그곳에서 火葬을 하고 돌담을 치고 시무를 얹으니 사람들은 장군 화장터라고 불렀다.

〔事例 4〕 태백시 文曲 편들 虎食

40여년전 편들에 살던 大氏 집안의 여자 아이가 범에 물려갔다. 며칠 전부터 여아는 장세마골 산등을 쳐다 보며 자꾸 슬피 울더라. 집에서는 아이가 어디 아픈가 하면서도 별일은 없겠지 하며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날 아버지는 春陽장에 가서 靑鹽(청소금)을 한포 사서 지고와 피곤하여 잠시 누웠고 어머니는 방앗간에서 보리를 쟁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방문이 비석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범이 나타나 아이를 눈 깜짝할 사이에 물고 갔다. 장세마골 산등에서 잡아 먹고 머리만 남겼는데 범이 혀로 머리를 짹짹 빚어 왼 가슴배(가리마)를 지어 바위 위에 달랑 올려놓았더라. 그 자리에서 화장하고 시무를 얹었다.

〔事例 5〕 태백시 銅店 돌꾸지 부엉지 虎患

돌꾸지(돌개치)에 農家가 있었다. 저녁에 여인이 부엌에서 밥을 짓는데 딸과 함께 있었다. 범이 부엌으로 들어와 아이를 물고 가자 여인이 소리치며 아이의 발목을 잡고 당겼다. 범과 물고 당기는 실랑이를 하다가 범이 놓고 가버렸다. 죽은 아이를 화장하였다.

【事例 6】 태백시 銅店 수지골 虎患

수지골에 유대장(柳氏 대장장이)이 살았다. 그집 할미가 뒷간에 갔는데 범이 나타나 물고 깔고 앉았다. 비명을 듣고 달려간 柳대장이 바들장(柳葉鎗)으로 범을 쏘았다. 창 끝이 휘며 박히지 않고 범은 달아나 버렸다. 죽은 할미를 화장하였다. 시루를 얻었다.

【事例 7】 태백시 銅店 방터골 고사리밭등 虎患

낮에 고사리밭등의 火田밭에서 귀리를 베기위해 아낙이 혼자 일을 하고 있었다. 건너편 떡갈등에서 어떤 사람이 바라보니 얼룩얼룩한 범이 귀리 밭을 여러 차례 들락날락하더니 아낙을 물고갔다고 한다. 그것은 범이 시간을 맞추기 위해 들락거리며 시간을 끌었다고 한다. 사람을 잡아 먹어도 때가 되어 한다는 것이다. 火葬하고 들무덤을 쌓았다. 멧모르고 그 들무덤 옆에서 누군가가(千夢根) 낮잠을 자다가 가위에 눌려 혼이 난 적이 있다고 한다.

【事例 8】 태백시 禾田 땡뒤 虎患

龍淵洞에 큰 집이 있었다. 여나쁜살 먹은 그집 아이가 집 앞의 커다란 측백나무를 쳐다보며 자꾸 울더니 범에게 물려 갔다. 범은 땡뒤로 물고가 뜰어 먹고 머리만 남겼다. 측백나무 건너편에는 범바위라는 큰 바위가 있는데 아마도 그 아이는 나무 너머 그 바위를 바라보지 않았나 생각된다. 아니면 측백나무에 돈범(표범)이 숨어 있지 않았나 한다.

【事例 9】 태백시 銅店 구무골 虎患

고수골에 살던 李氏 딸이 사군다리에 심부름을 나오다가 구무골 어귀에서 범에 물려갔다. 다 큰 처녀로 곧 시집갈 나이였다.

【事例 10】 태백시 銅店 사군다리 虎患

사군다리에 까치골댁(黃氏)이 술장사를 하고 있었다. 그 집에는 큰 봉노방이 있어 동네 사람들이 모여 회의를 하고 11명이 한 방에서 자게 되었다. 밤중에 범이 나타나 안쪽에서 자는 朴太俊(120살정도, 작고)씨의 발목을 물고 무려 일곱사람의 배 위로 끌고 나가는 것이었다. 문지방 밑에서 자던 정걸 영감이 잠결에 뭔가가 배 위

로 넘어가는 느낌을 받고 깨어 보니, 범이 박씨를 물고 끌어가는 것이었다. 정걸 영감은 일른 박씨의 남은 발목을 잡고 당기며 범이라고 소리쳤다. 나머지 사람들도 일어나 소리치며 범에게 火爐를 집어 던지는 등 법석을 치자 범은 그냥 가버렸다. 그때 박씨는 범에게 발등과 복상세뺨 부근을 물려 그 후로 잘속잘속 거리며 걷게 되었다. 10여년 후 박씨는 철북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땡테칸 산재당골 부근에 나무를 하러 갔었다. 비랑에 자란 큰 나무를 걸터 타고 그 나무를 도끼로 찍어 넘기다가 나무가 넘어가며 함께 넘어가 비랑에서 떨어져 크게 다쳤다. 사람들이 발견하여 집으로 업어와 치료를 하는데 피를 너무 많이 흘려 그날 밤 죽고 말았다. 그때 그곳에는 동네 사람들이 많이 모여 함께 박씨의 臨終을 지켜 봤다. 그런데 박씨가 죽자 갑자기 집 주위에 살기가 돌며 무서움이 엄습해 왔고 그 많은 사람들이 恐怖 분위기에 휩싸여 밖에 소변 보러도 못나갔다. 밤새도록 뜬 눈으로 지새운 사람들이 날이 밝아 나가 보니 집 주위에 범 발자국이 무수히 찍혀 있었다. 사람들은 박씨가 虎食해갈 팔자라서 범에게 물리게 되었고 땡테칸에서 낙상하였으며 죽게 되자 범이 와서 데려 가려고 그랬다는 것이다.

【事例 11】 旌善郡 高陽里 스프골 가메소래이 虎患

문곡리 쪽에서 新婦가 가마를 타고 스프골 쪽으로 넘어 오는데 범이 나타났다. 新郎, 가마꾼 삼례이 모두 도망가고 신부만 남아 범이 잡아 먹었다. 얼마전 까지도 고문신과 비너까지 현장에 시루와 함께 남아있었으나 지금은 시루가 깨어져 버렸다.

【事例 12】 旌善郡 飯山里 팔전 아래골 虎患

팔전에 살던 남자가 쥔신을 삼고 있었다. 통이 마렵다고 변소에 갔다 와서는 마루에 꾸구리고 앉아 치마의 서까래를 치세고 내리세는 것이었다. 사람들이 뵈하느냐며 빨리 들어 오라고 했다. 계속 서까래를 치세고 내리세더니 범에게 물려갔다.

【事例 13】 旌善郡 武陵里 멀미 虎患

멀미에 아이 백 여인이 있었다. 밤에 누군가가 부른다며 자꾸 밖으로 나갔다 들어왔다 여러 차례 하는 것이었다. 마지막엔 변소에 간다고 나와서는 신발을 꺼꾸로 신었다가 바로 신었다가 하더니 범에 물려 갔다. 범은 여인을 물고 가다가 뺨속에 든 아이는 꺼내어 도랑가에 놔 두었고 여인만 산죽발 돌터미의 큰 너래바위 위에서 잡아 먹고 머리만 남겨 놓았다.

[事例 14] 旌善郡 飯山里 자미골 虎食

자미골의 老人이 골짜기 안쪽의 생기골에 소 여물통인 구유를 파려 갔다. 큰 나무 속을 자귀로 파 내는데 벌이 나타났다. 노인은 급해서 파고 있던 구유를 열어 놓고 그 속에 숨었다. 벌이 다가와 구유를 굴러 뒤집으려고 구유 밑으로 발을 집어 넣었다. 노인은 일른 자귀로 벌의 발을 내리 찍었다. 그러나 그보다 빨리 벌은 발을 속 빼버렸다. 벌이 다시 발을 집어 넣으면 노인은 자귀로 내리치고 그보다 빨리 벌은 발을 빼버리고…… 이리기를 수 십번, 그만 벌은 가 버렸다. 얼마나 있다가 노인은 집으로 돌아 왔는데 그 물골이 말이 아니었다. 상투는 풀어지고 옷은 찢어져 날마가 되었고 死色이 된 노인의 얼굴은 鬼氣가 흘렀다. 이미 혼이 반쯤 빠져 버린 것이다.

이튿날 老人은 다시 山으로 가려고 나섰다. 파던 구유를 마저 파야 된다는 것이었다. 주위에서 말리며 가지 말라고 해도 듣지 않고 부득부득 가버렸다. 그 길로 벌에게 잡혀먹혔다. 사람들은 벌이 또는 장귀가 불러서 갔다는 것이다.

[事例 15] 三陟郡 理川里 자근다리 칼고디 虎食

이천리의 신기 마을에 머슴이 있었다. 아직 장가를 가지 못한 떠꺼머리 총각 머슴이었다. 그날따라 머리를 새파랗게 빗어 물레머리를 하고 청승맞게 소리를 하며 췌신을 삼고 있는데 벌이 나타나 칼고디(劍峯山)로 물고가 잡아 먹었다.

[事例 16] 三陟郡 축원리 북다랭이골 절터 虎食

절터 부근에 집이 있었다. 장경 다섯이 놀다가 함께 한 방에서 잠을 잤다. 밤에 벌이 나타나 문앞의 사람을 놔 두고 가운데 자는 사람을 물고 갔다. 두 사람이나 건너 가운데 자는 사람을 물고 갔으니 팔자 소란이라는 것이다.

[事例 17] 三陟郡 마차리 연화골 虎食

연화골 에기소(一名 女妓沼)에서 시집갈 나이가 된 처녀가 목욕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벌이 나타나 처녀를 물고 10여m 떨어진 범바우로 가서 잡아 먹었다. 사라호태풍 때 시루와 돌무덤이 떠내려 가고 지금은 돌 몇개만 남아 있다.



(사진 3-1)

뒷쪽의 폭포 밑에서 목욕하던 처녀가 손가락질 하는 곳으로 물러와 뜰어 먹히고 머리만 남았다. 화강한 돌무덤이 있었으나 사라호태풍 때 유실되었다.

[事例 18] 三陟郡 新里 전나무골 虎食

물방아골에 총각이 살았다. 전나무골 큰형님 집에 사시던 아버님이 돌아가셨다. 총각은 초상 치르러 큰형님 집에 가서 상복을 입고 곡을 하다가 잠시 뒷걸에 붙일 보러 나갔다. 갑자기 나타난 벌에 물려가 잡혀 먹혔다.

[事例 19] 三陟郡 新里 장상골 虎食

장상골 어귀에 사는 시집 온지 얼마 안되는 새댁을 벌이 물어 갔다. 장상골 안쪽에서 잡아 먹고 머리만 남기 두었다. 머리카락을 벌이 허로 싹싹 훑아 된 가름배(가르마)를 지어 곱게 빗어 남더라 한다.

[事例 20] 三陟郡 추동리 바람부리 굿동 虎食

바람부리에 사는 여인이 그날 낮에 발을 매는데 노래를 청승스레 부르며 눈물을 툭툭 흘리는 것이었다. 옆에서 같이 발을 매던 사람이 왜 그러느냐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여인은 왜 그런지 자꾸 슬피져서 그런다고 하며 멍하니 굿동

(물러가 죽은곳)쪽을 바라본다. 그러다가 또 悽然한 노래를 自贖하듯 부르며 똬리 모를 시름과 한숨과 눈물을 흘리기를 하루 종일 하였다. 옆에서 같이 밥을 때던 사람들이 공연히 섬뜩한 것이 무서워 지더라(이때 이미 굿동에서 범이 내려다 보고 있었거나 창귀가 여인의 魂을 빼 갔을 것이다).

저녁 때 밥을 다 먹고 집으로 오던 여인이 개울 가에서 손이나 씻으려고 가니, 이 옷집에서 산나물을 삶아 울켜 내느라 웅가지에 담아 둔 것이 보였다. 여인은 문득 산나물이 먹고 싶었다. 두어 재기를 짜서 치마에 싸 집으로 훔쳐 왔다. 산나물을 마루에 내려 놓고 돌아서는 데 누군가가 자기를 부르는 것이었다. 여인은 자석에 이끌리듯 집뒤의 굿동으로 올라간다. 남편이 방 안에서 인기척을 느끼고 나와 보니 마루에는 불이 흐르는 산나물만 있고 아내는 보이지 않았다. 뒤결에 나와 뒷산(굿동)을 쳐다 보니 아내가 뭐라고 중얼거리며 울며 산으로 올라 가는 것이 보였다. 퍼득 虎患을 예감한 남편이 낫을 들고 소리치며 쫓아갔다. 그제사 소름끼치는 범의 울부짖음이 나며 가까이 오지 못하게 위협적인 咆哮를 했다. 그래도 남편은 악을 쓰며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다가갔다. 으르렁 대던 범이 여인의 다리를 하나 툭 떼어 남편에게 던졌다. 뒤이어 범은 피를 뿌렸다. 남편은 기절하고 말았으며 여인은 굿동에서 뜯어 먹히고 머리만 남았다. 산나물, 더덕 등과 같이 산에서 캐오거나 뜯어 온 산물 건은 절대로 훔쳐서는 안된다는 관습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여인이 산나물을 몰래 훔친 것이 좋지 않았다고 한다. 주인의 허락이 있으면 몰라도 가만히 훔치는 것은 山神의 노여움을 받는다고 한다.

〔事例 21〕 東海市 新興洞 사학골 서창가이 虎食

서창가이에 살던 여인이 저녁에 祭祀 음식을 장만하기 위해 채를 썰다가 칼에 손을 베었다. 피가 흘러 祭祀음식에 묻었는데 음식이 아까워 그냥 祭祀床에 올려 제사를 지냈다. 제사를 지내고 나서 변소에 간다고 나간 여인이 그길로 범에 물려가 잡아 먹혔다. 이것은 정결해야 할 제사 음식에 피가 묻었으니 不淨을 탄 것이며 그禍로 범에게 물려간 것이라 한다.

〔事例 22〕 寧越郡 上東 목적골 虎食

신대골 어귀에 집이 있었다. 어미는 방아를 찧고 있었고 그 옆에는 아이가 징징 울며 보챈다. 일하는데 저리 가서 놀라고 해도 계속 보채며 말썽을 부린다. 화가 난 어미는 속이 상해 “저놈의 새끼 범이나 물어가지”하였다. 그러자 곧 범이 나타나 아이를 발로 찍어 마당에 집어 던졌다. 아이가 “엄마! 엄마…….”하며 부르짖는데 어미는 겁이나 나서지를 못하고 범은 아이를 목적골로 물고 가서 잡아먹었다.

〔事例 23〕 奉化郡 大規里 드르내 어드뱅이 虎食

드르내(坪川)에 살던 사람이 어드뱅이에 피 빼끼러 갔다가 큰 송이버섯을 하나 따왔다. 얼마나 큰지 확 퍼드러진 것이 큰 숟뚜껑 만하고 그것을 썰(썰어) 놓으니 큰 함지박으로 하나 가득 되었다. 그 송이버섯을 끓여 먹고 그날 밤 범에 물려가 죽었다. 어드뱅이 쫓대바우 밀이 었다.

사람들은 그 송이를 먹고 화를 당했으니 그 송이버섯의 탈이라 하여 그 송이버섯을 범송이 혹은 호랑송이라 하였다. 호랑송이를 먹고 虎食되어 갔다는 것이다.

〔事例 24〕 奉化郡 大規里 白川골 虎食

백천골에 어떤 사람이 살았다. 장사하러 멀리 갔는데 아내와 머슴이 숲속에서 이상한 짓을 하다가 돌아 범에게 물려갔다. 머슴은 잡아 먹고 여인은 그냥 두었다.

〔事例 25〕 奉化郡 石浦里 반야골 삿갓봉 虎食

반야골 새미터의 여인을 범이 물고가 삿갓봉에서 잡아 먹었다. 머리만 남은 것을 화장하였다.

자식들이 복수를 하고자 범이 다니는 길목에 갈티(범 잡는 틀)를 설치하였다. 배변 가보면 갈티는 튀어 있는데 범은 걸려 들지 않았다. 밤에 가만히 지켜보니 어머니가 범보다 앞서 오며 갈티를 설치한 곳에 오더니 “아들이 또 이런걸 놓아 길을 가로막아 놓았구나”하며 툭 치니 갈티가 내려 앉아 버리는 것이었다. 어머니가 지나간 다음 조금 있다가 범이 “어흥”하며 지나가는 것이었다. 몇번 그리 하였는데 밤에 戌直하던 아들이 어머니(창귀)가 지나간 다음 어머니가 튀어 놓은 갈티를 열른 다시 피어 놓았다. 그리고 숨이 있으니 뒤따라 오던 범이 치이는 것이었다. 아들은 얼른 달려 들어 범의 네를 갈라 간을 꺼내어 썰었다. 원수를 갚은 것이다.

〔事例 26〕 英陽郡 日月面 주치재 虎食

주치재에 李氏네가 살았다. 아들이 무척 효성스러웠는데 어느날 범이 아버지를 물어가서 잡아 먹었다. 아들이 복수를 하기위해 범이 다니는 길목에 송에칼(송이 칼)을 놓았다. 변변히 칼만 튀어 있고 범은 잡히지 않았다. 밤에 살펴서 숨어서 보니 아버님이 범보다 앞서 오며 송이칼을 보더니 “어이쿠 누가 우리 생원님을 다치게 하려고 이런걸 놓았나”하면서 툭 쳤다. 송에칼이 떨쩍 튀며 아버님이 지나간 다음 범이 지나가는 것이었다. 아버님이 창귀가 되어 범의 신변을 보호하는 것이었다. 이

를 눈치 챈 이효자는 다음에 숨어 기다리다 아버님이 칼을 치우고 지나간 다음에 일론 다시 송애칼을 들어 놓고 기다리니 뒤에 오던 범이 송애칼에 걸려 허리가 잘려 버렸다. 李孝子는 일론 달려들어 범의 배를 갈라 肝을 꺼내어 썰었다. 아버님의 원수를 갚은 것이다.

〔事例 27〕 蔚珍郡 德邱里 웅봉산 虎患

웅봉산 밑에서 두 내외가 꿀밤(도토리)을 주우며 부근에 임시로 거처를 마련하고 주워모은 꿀밤을 삶아 말리는 일을 했다. 밤에 범이 나타나 아내를 물어갔다. 임시로 마련한 움막 뒤쪽의 서덜로 끌고 가서는 죽이지는 않고 밤새도록 으르다가(고양이가 귀를 놀리듯) 날이 새니 더 지체하지 못하고 마지막으로 여인의 얼굴을 혀로 핥아 버렸다. 그러자 여인의 입과 한쪽 눈이 휘 돌아가 버렸다. 입은 귀밑까지 돌아가 버렸고 눈은 옆 이마까지 밀려 올라가서 꺼져 버렸다. 그야말로 귀신의 물골을 한 괴이하고 험상궂은 얼굴이 됐는데 한번 그 얼굴을 본 사람이면 모두 무서워 달아났다. 그래도 범에 물려가서 죽지 않고 살아난 것만도 천만 다행이었다. 범은 헛바닥에 밤들만한 혹이 여러개 돌아 있어 핥으면 가족이 벗겨질 정도라 한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범도 사람을 함부로 잡아 먹지 않으며 팔자에 없으면 범이 잡아가지도 먹지 않는다고 한다.

〔事例 28〕 三陟郡 黃鳥里 六百山 虎患

여인이 방에서 다리미질을 하다가 범의 습격을 받았다. 순간, 화로를 범에게 집어 던졌고 범은 그대로 여인을 덮쳐 여인은 죽고 범도 털에 불이 붙어 죽었다. 어디 갔다온 남편이 집에 와 보니 아내와 범이 방안에 함께 죽어 있었다. 집에 불을 지르고 멀리 떠나 갔다.

〔事例 29〕 旌善郡 德岩里 虎患

밤에 산모가 애를 낳았는데 남편이 약을 지으러 고개를 넘어 갔다. 산 넘어 마을에서 약을 지은 다음 관솔불을 켜고 다시 고개를 올라 왔다. 고개마루에 올라서니 반대편 자기집 쪽의 산길을 아내가 정정 울며 머리를 풀어 헤치고 올라 오는데 뒤쪽에 범이 따라 오는 것이었다. 남편이 소리치자 범이 불빛을 보고 피해버리고 產母는 그냥 쓰러져 의식을 잃고 말았다.

범은 사람을 물고가지 않고 걸려서 앞세워 데려간다고 하는데 여인이 고개까지 온 것은 범의 힘이었으며 범이 사라지자 혼절한 것이라 한다.

〔事例 30〕 旌善郡 德岩里 虎患

범이 사람을 업고가서 藁가에 세워놓고 경충 뛰며 앞발로 사람의 빵을 철썩 치는 것이었다. 그러면 사람은 히히 웃고 또 치면 히히 웃고 하더라. 그것은 범의 힘으로 웃는다는 것이다. 사람은 이미 혼이 빠져 버린 상태이고 사람들이 나타나 소리치자 범은 피해버리고 사람은 혼절해 버렸다.

〔事例 31〕 蔚珍郡 前谷洞 전내 虎患

아주 명당자리가 있는데 한가지 흠이 있었다. 그곳에 묘를 쓰면 집안이 번창하는데 山의 기운이 강하며 虎食 당해 갈 자리라는 것이다. 그래도 욕심이 나서 藁를 썼는데 가끔 집안에 虎食되이 가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묘 앞에 시루를 얹어 놓아 재앙을 막고자 한 흔적이 있다. 지금도 깨어진 시루 조각이 흩어져 있다.

〔事例 32〕 太白市 銅古 방터골 虎患

덕진영감(金元淑 105세 작고)이 綿山에 취을 캐러가서 보니 범이 큰 멧돼지를 뜯어 먹고 있다가 사람을 보더니 피하는 것이었다. 덕진영감이 겁도 없이 썰렁쿨로 돼지를 묶어서 끌고 내려 오는데 범이 되돌아와 멧돼지를 물고 당기는 것이었다. 덕진영감이 죽기를 각오하고 범과 서로 물고 당기며 실랑이를 하다가 결국 끌고 내려왔다. 집으로 끌고온 멧돼지를 몇날을 잘 끓여 먹었다. 그때는 심한 흉년으로 굶주려 취을 캐서 겨우 목숨만 연명할 때라 차라리 범도 겁나지 않아 죽기 살기로 먹을 것을 보고 덩비들이 범과 서로 양식 핥기를 하였다고 한다. 아마도 그때 덕진영감의 눈빛이 몹시 살기를 띠었으리라. 차라리 그 일이 썰 캐기 보다 낫기에 그 위험한 일을 했다고 하니 마을 사람들은 죽으려면 무슨 짓을 못하느냐며 혀를 찼다. 동네 사람들은 덕진영감을 보고 미련한 사람이라며 山神의 음식을 가로챘으니 반드시 禍가 있으리라고 걱정을 하였다.

이듬해 봄에 고사리밭에서 火田을 하는데 뿔에서 돌이 굴러와 덕진영감의 다리에 맞아 다리뼈가 부러졌다. 그로인해 1년 이상 고생을 하였는데 사람들은 山神의 양식을 가로챘어 산신을 욕보인 죄로 벌을 받아 그렇다고 하였다.

시 군	호 식 터
태 백 시	화 전 호명골 절터골 화장터
〃	어 평 소상골 화장터
삼 책 군	하 장 추동리 갈미봉 중턱에 호식터
〃	〃 추동리 꾀발굴 꼭대기 뺑에밑에 호식터
〃	〃 추동리 바람부리 굽등 호식터
〃	〃 추동리 꾀발굴어귀 호식터
〃	〃 추동리 새금이 호식터
〃	〃 대전리 큰밭 화장터
〃	〃 용연리 용소골 시무골 잠등 호식터
〃	〃 조탄리 역김이골 막바지 호식터
〃	〃 조탄리 선돌네 뽕등 호식터
〃	〃 한소리 천제당산 호식터
〃	〃 한소리 패병산 호식터
〃	〃 한소리 절골 막바지 호식터
〃	도 계 신리 작은치골 장등 호남터
〃	〃 대이리 골밭 물골 속등 호식터
〃	〃 신리 전나무골 호남터
〃	〃 신리 옥백산골 큰평전 호남터
〃	〃 신리 너벙이골 막바지 심창봉터 호남터
〃	〃 신리 장상골 막바지 호남터
〃	〃 신리 사라고 죽배기 호남터
〃	〃 신리 물방아골 막바지 호남터
〃	〃 신리 뽕배리 장등 호남터
〃	〃 구사리 미륵마우 등날 호남터
〃	〃 구사리 시루봉 태배기 호남터
〃	〃 구사리 백산골 큰덕 호남터
〃	〃 마차리 연화골 고층등 호식터
〃	〃 마차리 원석산 거시골 막바지 호식터
〃	〃 마차리 연화골 샷갯봉 뽕에밑 호식터
〃	〃 마차리 연화골 예기쓰 호랑마우 호식터

시 군	호 식 터
삼 책 군	도 계 황조리 거시터골 호남터
〃	〃 황조리 옥백산 검은음달 뽕에목이 호남터
〃	〃 무건리 호랑장터 호남터
〃	〃 집리 독골 호식터
〃	미 로 상사전리 막재 호식터
〃	〃 상정리 뽕대골 사브랭이 호식터
〃	가 곡 풍곡리 외삼방 찬샘이골 왕서덜 호식터
〃	〃 풍곡리 덕포 배봉산 호식터
〃	〃 동활리 큰터 한개골 호식터
〃	〃 동활리 생배리 범바우등 시루췌진목이 호남터
〃	가 곡 오저리 년근터 호식터
〃	〃 오저리 치바우밑 화장터
〃	〃 오목리 가는골 호식터
〃	〃 탕곡리 땃태 호식터
〃	〃 탕곡리 어랫마골 호식터
〃	노 곡 상마읍리 노문가리 호식터
〃	〃 문달리 샷갯봉 호식터
〃	원 덕 축천리 북다랭이골 절터 호식터
〃	〃 축천2리 북다랭이골 시우골 호식터
〃	〃 축천2리 북다랭이골 오실골 호식터
〃	〃 이현리 자근다리 칼고리 호식터
〃	〃 기곡리 상천배 더너실골 호식터
〃	〃 기곡리 상천배 너래밭골 장등 호식터
〃	〃 기곡리 오르골재 호식터
〃	〃 이현리 대삼재 호식터
정 선 군	동 면 북동리 한바우골 국시댕이 건너음달 호식터
〃	〃 북동리 한바우골 국시댕이 열 뽕태칸 호식터
〃	〃 북동리 한바우골 탑골 화장터
〃	〃 북동리 재미골 모기장등 화장터
〃	〃 북동리 도뚜마리골 막바지 호식터
〃	〃 북동리 박심재밑 곳집등옆 호식터

시 군	호 식 터
정 선 군	동 면 북동리 한바우골 고양산덜 도롱골 호식터
〃	〃 오산리 앞 문치 꼭대기 상상봉 호식터
〃	북 면 여량리 월부동 다당골 배지기등 호식터
〃	〃 여량리 용전산 호식터
〃	〃 유천리 송천 건너 개금벌 속골 호식터
〃	〃 고양리 스톱골 가메소래이 호식터
〃	〃 어도원리 오두재 호식터
〃	〃 남평리 한대골 병풍바우밑 호식터
〃	〃 북평리 아창골 산동 호식터
〃	〃 구절리 피골 막바지 연애동 호식터
〃	남 면 증산리 자고치 씨리재 호식터
〃	〃 증산리 자미골 안쪽 생기골 호식터
〃	〃 증산리 멀미 돌티미 산죽밭 호식터
〃	〃 증산리 멀미 높은 가메 호식터
〃	〃 자미원리 약물래기 화장터
〃	〃 낙동리 백이산 호식터
〃	〃 광덕리 수아우 시루봉 호식터
〃	〃 무릉리 발전 아래골 호식터
〃	〃 유평리 벌어실 동막골 호식터
〃	〃 선평리 백이산 자차골 호식터
〃	임계면 덕암리 샘배이골 호식터
〃	〃 고양리 소라골 속등 호식터
〃	〃 도전리 수병산 호식터
〃	〃 골지리 문래산 호식터
〃	정선읍 굴암리 만지산 설동고디 호식터
〃	〃 용탄리 행배동 설마령 고디 호식터
〃	〃 회동리 신탕동 덕둔지 막바지 호식터
영 월 군	상동읍 구래리 목적골 호식터
〃	〃 구래리 광대골 백운령 범다물
〃	〃 구래리 새송 드림밭골 호식터
〃	〃 구래리 연애골 호식터

시 군	호 식 터
영 월 군	상동읍 천평리 황정재 호식터
동 해 시	신흥동 장대산 호식터
〃	송지동 초록산 장군바위 호식터
〃	신흥동 정지골 천제당 산동호식터 2곳
〃	〃 서학골 사창가이에 호식터
〃	발한동 청룡사터 호식터
봉 화 군	석포면 대현리 백천 산재골 호식터
〃	〃 대현리 평천 어드벙이 호식터
〃	〃 대현리 평천 조록바위봉 촛대바우밑 호식터
〃	〃 대현리 늦재밑 번터골 호식터
〃	〃 대현리 늦재위쪽 타랭이 호식터
〃	〃 석포리 반야골 새미터 샷갯봉 호식터
〃	〃 석포리 너벙이 호식터
〃	〃 승부리 마무이 호식터
〃	소천면 고선3리 홍제사골 호식터
〃	〃 분천리 원곡 화장터골 호식터
〃	춘양면 소토리 샘골 호식터
〃	〃 서백리 금당곡 막바지 호식터
울 진 군	북 면 덕구리 범우골 화장터
〃	울 진 고성리 귀골 호식터
〃	서 면 전곡리 전내 서남골 호식터(5개소)
〃	〃 전곡리 전내 호박배이골 호식터
〃	〃 전곡리 전내 북상나무골 호식터
〃	〃 전곡리 원곡 상재 호식터
〃	〃 광희리 숲거리 호식터
영 양 군	일월면 일월산덜 주치재 호식터



〈사진 3-2〉 심도형 텃메기 虎食塚

높이 160cm, 둘레 800cm, 길이 280cm, 폭 200cm의 대형 돌무덤 위에 깨어진 시루와 녹슬은 가락이 보인다(동점동).



〈사진 3-3〉 깨발양지 虎食塚

이끼 낀 돌무덤 위에 깨어진 시루가 얹혀 있다(창죽동).



〈사진 3-4〉 버들골 설통바우 虎食塚

큰 압백 밑에서 빗이 사람을 잡아 먹었다. 그곳에서 火葬을 하였는데 사람들은 화장터라 한다. 몇개의 돌로 경사진곳을 쌓았고 깨어져 조각이 달아난 시루가 보인다. 가락은 아두리 찾았으나 없었다.



(사진 3-5) 박심재 곳집동 虎食塚

바위 밑에 몇개의 돌이 있고 밑이 빠진 시루가 엮여있다. 그리로 나무줄기가 돌아 올라왔다. 가락은 보이지 않았다.

5. 虎食과 宿命論

苛政은 猛於虎라는 古事가 있다. 혹독한 政治와 官吏의 橫暴, 過重한 税金은 범보다 무섭다는 뜻으로 孔子 時節의 이야기다.

太白山脉 속으로 들어와 살던 火田民들 속에는 혹독한 官吏의 횡포와 과중한 税金, 賦役 등에 쫓겨온 사람들이 많았다. 차라리 宿命으로 생각하고 범에게 잡혀 먹히더라도 그들은 들(野)로 나가지 않았다. 범에게 잡혀 먹혀도 묵묵히 火田을 일구며 마음의 平和를 구했고 虎食된 상황을 神聖함으로 格上시켜 슬픔을 美化하여 성스러움으로 바꿨다. 그리하여 山神(범)을 섬기며 겁내하며 모든 상황을 宿命으로 돌리고 마음의 平穩을 찾는 것이다.

우리나라 傳說에 諷刺의이고 諧謔의인 범 이야기, 착한 범 이야기, 山神靈으로서의 범 이야기 등 범에 대한 이야기가 많다. 대체적으로 범을 좋게 표현하는 내용의 이야기가 主宗을 이루고 있다. 사람을 해치고 잡아먹는 무시무시한 범이 우습고 바보스럽고 착하고 인자한 짐승으로 나온다. 미워하고 저주해야 할 짐승이 孝誠스럽고 威嚴스러워 憧憬의 對象이 된다. 또한 하나도 무섭지 않은 멍청한 범으로, 어리석고 바보스런 모습으로 묘사된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강한 者에 대한 不可抗力에서 나온 挫折이 미움의 度를 넘어 憧憬과 두려움이 만들어낸 心理狀態라 할 수 있다. 우습고 바보스런 범의 描寫는 강한 범을 格下시켜 心理적으로 地位를 차지하고 범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겠다는 意志가 숨어 있다. 또한 범을 神格化하고 孝誠스럽고 仁慈하고 착하게 보는 觀點은 强者에 대한 不可抗力의 畏敬스러움으로 挫折된 心理를 차라리 宿命的으로 받아들여 人爲的으로는 二偉大하고 勇猛한 猛獸를 당할 수 없기에 神과 人間의 관계로 배급되고 謔念한 狀態로 볼 수 있다.

그렇기에 범에게 잡혀먹힌 창귀조차 죽어서도 범의 威에 눌려 범의 종(노예)이 되는 절저한 屈服의 宿命論을 만든것이라 본다.

6. 倭鬼論

1) 창귀란?

범에게 잡아 먹힌 사람의 靈魂을 창귀라고 한다. 聽雨記談에 보면 창귀에 대해 이
르기를

「범에게 잡혀 먹힌 사람의 靈魂으로 잡혀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고 오로지 범의 중(노예)이
되는것을 창귀라 한다」(虎留人魂不敢適他輒隸事虎名曰倭)

라고 기록되어 있고 五洲衍文長箋散稿에도

「내가 여러 책을 열람해 보니 범에게는 창귀가 있는데, 이는 사람이 범에게 잡아 먹힌 것이
다. 臥란 범이 사람을 잡아먹는 것을 말한다」(予覽諸書則虎有倭鬼即人爲虎臥按臥虎食人
也)

라고 한 것을 봐도 알 수 있다. 아이든 어른이든 男女가 범에게 잡아 먹힌 뒤 그 靈
魂이 창귀라는 귀신이 되어 항상 범의 곁에 붙어 다니게 된다.

창귀는 여러가지 이름이 있는데 朴趾源의 「虎叱」에는 屈閣, 葬兀, 窺潭 등의 창귀
이름이 보이고, 民間에서는 좀더 土俗적인 창귀의 이름이 있다. 창귀를 산황사 귀신
(山橫死鬼神)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홍살이 귀신」 또는 「되 홍살귀」, 「홍살귀」라 부
르고 太白地域에서는 「가물글기」 또는 「가물글기」라고도 부른다.

2) 倭鬼의 俗性

(1) 사다리 놓기

범에게 잡아먹힌 사람의 靈魂이 창귀가 되는데, 창귀는 범의 威勢에 눌리어 그 威
圈에서 달아나지 못하고 범의 종(노예)으로 일한다. 그래서 그 지옥 같은 威圈에서
脫出하려면 사다리를 놓아야 한다.

「사다리」 혹은 「다리」라고 부르는 이 행위는 창귀가 또 다른 사람을 범에게 잡혀
먹히게 하고서야 범의 威圈에서 빠져 나올 수 있다는 것으로 왕귀신과 흡사한 行爲
인 것이다.

다른 사람을 하나 虎食되게 하고서야 창귀 役割을 임무교대 하고 그 굴레에서 벗
어나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인데 그래서 창귀는 항상 虎食되어갈 사람을 찾게
된다. 첫번째 창귀는 두번째 창귀를 만들어 놓고야 범의 威圈에서 빠져 나올 수 있
으니 두번째 창귀도 그리해야 하고 세번째 창귀도 그리해야 한다. 이와 같은 虎食의
악순환을 「사다리 놓기」 혹은 「다리 놓기」라고 하는데 그 일을 창귀가 맡는다고 한
다. 그래서 범 물어간 집과는 婚姻을 아니 한다고 하는 것이며 창귀는 사돈의 딸촌

까지 찾아 다니면서 害惡을 한다고 한다. 그래서 民間에서는 虎食되어 갈때, 반드시
창귀가 사람을 불러내거나 誘引하여 범에게 잡혀 먹히도록 한다고 믿고 있다.

虎患의 事例 [13, 14]에서 보는것 처럼 자주 나가려 한다면가 가지말라고 해도 자
꾸 가려고 하는것은 창귀가 덮어 씌어 창귀가 부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다.

창귀는 倭字에서 보듯이 사람(人) 가운데 어른(長)이다. 창귀가 되는 것도 선택된
사람만이 맞이하는 것으로 팔자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2) 倭鬼의 食性

창귀는 소라, 골뱅이 등을 좋아하며 신(酸)음식을 좋아한다고 한다.

湖濱雜記에 이르되

「虎師가 범을 잡는 방법은 羊을 陷穽 속에 넣어 울게 함으로써 범을 유인하는데 먼저 青螺
(소라)를 삶아서 부근 산모퉁이와 함경근처에 흩어 놓는다. 범이 함경근처에 이르면 앞서오
던 창귀가 소라를 보고는 탐욕스럽게 발라 먹노라고 범을 호위하는 일을 잊고 만다. 마침내
범이 홀로 가다가 그만 함정에 빠지게 되면 虎師가 묶어 가지고 간다」(陸次雲湖濱雜記 虎
師捕虎其法以羊置穽中鳴以相誘煮青螺斗許遍散山隅虎至倭鬼導之倭鬼覓食剔肉安爲虎護虎遂
孤行即慎入穽虎師束之以歸)

라고 했고 또

「이런 이야기에 창귀는 신것을 매우 좋아하기 때문에 범이 다니는 길목에 소귀나무(楊梅)
열매를 흩어 놓으면 창귀가 그것을 주워 먹노라 범을 인도하지 못하게 되고 필경에는 범이
함정에 빠지게 되니 이를 취하여 잡는다」(或說倭鬼嗜酸故布楊梅於虎行處俟拾取不爲虎導竟
陷穽中就捕云)

라고 했다. 이렇듯 창귀는 신 열매인 소귀나무(楊梅) 열매나 烏梅 등을 좋아 하며
소라, 골뱅이 등을 좋아한다. 그것이 있으면 먹는데 정신이 팔려 다른 일은 모두 잊
어 버리는 습성이 있는 것이다.

대개 신 음식은 色을 의미하고 소라등의 음식은 慾을 의미하니 창귀의 食性으로
창귀의 性質을 짐작할 수 있다.

(3) 창귀는 슬픈 鬼神

어느 이야기를 들어 봐도 창귀는 슬픈 귀신인것 같다. 悽然하게 슬피울며 슬픈 노
래를 부르며 다닌다.

1. 李圭景-五洲衍文長箋散稿 虎虎辨證說.

2. 虎師-범 잡는 사람.

약 60여년전 삼척군 죽천 2리 북달골과 인근 일대 30여리 떨어진 삼십골까지 人畜에 해를 끼치던 범이 있었다. 수많은 家畜과 사람이 잡아 먹었는데 북달골에 살던 의협심이 강한 朴春實(110세가량, 작고)이란 사람이 북달골 山 장등에 송이칼을 설치하고 범을 잡으려 했다. 그러나 번번히 송이칼만 튀어 있고 범은 잡히지 않아 하룻밤에는 戊直을 하는데 자세히 보니 창귀가 범보다 앞서 슬피울면서 애절한 노래를 愴然히 부르며 오더라. 창귀가 송이칼을 보더니 탁 치며 뛰어 놓고 지나가고 조금 있다가 범이 지나가는 것이었다. 그래서 박씨는 다음날 송이칼을 다시 괴어 놓고 기다리다가 창귀가 지나간 다음 일른 송이칼을 다시 괴어 놓고 기다리니 뒤이어 오던 범이 지나가다가 송이칼에 치어 허리가 끊어 졌다. 1시간여 동안 몸부림치며 발악을 하던 범은 죽었고 그후 부터는 인근에 虎患이 없어졌다고 한다.

太白市 文曲洞의 편뜰에서 虎食되어간 女兒도 잡혀 가기전 민산을 바라보며 슬피 울었고 禾田洞 龍水골에서 虎食되어간 男子아이도 집앞의 측백나무를 쳐다보며 울다가 잡혀갔다.

三陟郡 추동리 바람부리의 여인도 虎食되어 가기전에 밥을 매며 하루 종일 슬피 울며 청승스런 노래만 불렀다. 이렇게 이유없이 사람이 슬픈 노래와 서럽게 우는 것은 창귀가 덮어 씌어 그렇다 한다.

창귀는 슬픔의 化身이다. 모든 사람에게 슬픔을 준다. 이미 범에게 잡혀갈 팔자라면 창귀의 부르는 소리를 외면하지 못한다. 愴然하게 서럽게 울며 범 아가리로 다가가. 죽음을 宿命으로 여기며 그래서 체념의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는 것이리라.

(4) 창귀의 任務(役割)

창귀는 범에게 붙어 다니며 범의 身邊을 護衛하는 任務를 맡고 있다.

五洲衍文長箋散稿에 보면

「그래서 창귀는 항상 범을 따라 다니며 길을 인도한다. 고로 범은 그 소리를 듣고 가기도 하고 멈추기도 한다」(而虎恆常隨虎而行故虎聽其行止云)

라고 하였으니 창귀의 역할을 잘 말해주고 있다.

太白地域의 村老들의 말을 들어 보면 창귀는 항상 범보다 앞서가며 덮이나 벼락들, 함정 등을 미리 범에게 알려주어 범이 잡히지 않게 한다고 한다. 그래서 먼저 창귀를 따 돌려 놓고 범을 잡는다고 한다. 또한 친구의 이름이나 아는 사람의 이름을 많이 외워 그들을 불러내거나 유인하여 잡아 먹히게 하고 범의 길 안내를 맡은 것이 창귀의 주된 임무이다.

창귀는 죽어서 까지 범의 威에 눌려 범의 威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범을 護衛하여 길 안내와 범의 먹이 調達의 책임을 지는 役割을 한다고 보겠다.

3) 「虎叱」속의 창귀 役割

朴趾源의 漢文小說인 「虎叱」에 나오는 창귀의 이름을 分析하여 창귀의 俗性和 役割에 대해 알아 본다.

「虎叱」에는 세 종류의 창귀가 나오는데 屈閣과 彝兀과 鬚渾이다.

먼저 글자에 대해 기술한 대목을 보면

「범이 사람을 하나 잡아 먹으면 그 귀신이 굴각이란 창귀가 되는데 범의 겨드랑이에 붙어 살며 범을 부적으로 인도한다. 범이 술전을 함으면 주인이 갑자기 배고픈 생각이 나서 밤이라도 아내에게 밥을 지으라 한다」(虎一食人其僕爲屈閣在虎腋導虎入廐其謂耳主人思繼命妻夜炊)

라고 했다.

다음은 彝兀에 대한 기록이다.

「두번째 사람을 잡아 먹으면 그 창귀를 이율이라 하는데 범의 광대뼈에 붙어 살며 높은데 올라가 위험을 살피며 굴짜기의 함정이나 덮이 있으면 먼저가서 그 덮을 벗겨 놓는다」(虎再食人其僕爲彝兀在虎之輔升高視廣若谷奔野先行釋織)

라고 하였으며 鬚渾에 대하여는

「세번째 사람을 잡아 먹으면 그 창귀를 죽흔이라 하는데 범의 턱에 붙어 살며 평소에 잘 알고 있는 친구의 이름을 많이 외워서 불러내게 한다」(虎三食人其僕爲鬚渾在虎之頤多贊其所識朋友之名)

라고 했다.

위에서 살펴 본 세 종류의 창귀는 각각 그 맡은바 임무가 다르며 이름도 特異하다. 이것을 다시 解釋하여 보면 그 이름의 特徵과 맡은 일이 비슷하게 聯關되어 있음을 알겠다. 이것을 다시 자세하게 풀어보면 다음과 같다.

처음 잡아 먹힌 창귀를 屈閣이라 한다.

屈은 卑屈이며 屈服을 뜻하고 閣은 閤氏를 의미하니 꼭두각시와 같다. 屈閣이란 이름은 몸을 비굴하게 굴며 범에게 굴복하여 아침하는 奴隸와 같은 꼭두각시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범을 부적으로 인도한다고 하였으니 屈閣의 임무는 사람을 꼬여내는 역할을 맡았다고 할 수 있으며 屈閣의 이름은 범의 종이며 꼭두각시를 뜻한다.

두번째 잡아 먹힌 창귀를 彝兀이라 한다.

彝兀의 彝는 法을 意味하니 彝倫이요 彝則이다. 언제나 범을 彝倫으로 섬겨야 하며 彝儀로 모셔야 한다는 뜻이며 兀은 兀刑으로 발뒤꿈치를 잘리는 刑罰을 이르는

말이다.

兀刑을 받은 사람은 잘 견지를 못한다. 葬兀은 언제나 범의 길을 떠나지 않고 범을 葬儀로 모셔야 하는 葬則에 묶여서 兀刑을 받은 사람처럼 멀리 달아나지 못하고 항상 범의 威囹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범의 길에 붙어서 범의 身邊을 護衛하는 귀신으로 풀이할 수 있다. 葬兀의 임무는 길 안내를 맡아 함정과 덫을 미리 알려주는 것이다.

세번째 잡혀 먹힌 창귀를 鵲渾이라 한다.

鵲은 육으로도 읽으나 여기에서는 죽이나 국으로 읽는 것이 타당하리라 본다. 鵲은 鵲糜로 미음 또는 죽(粥)을 의미하니 鵲渾이며 또한 국으로 발음되니 莊子에 보면

「하늘이 기른것은 하늘이 먹는다」(天鵲者天食也)

라고 하여 기른다는 뜻으로 쓰이기도 한다.

渾은 渾濁이며 渾糲며 또 다른 뜻으로 오랑캐(西戎名渾夷)를 의미하기도 한다. 결국 죽혼은 음식을 담당하는 오랑캐라는 뜻이 되는데 여기서 죽혼의 역할은 친구를 불러내어 범의 먹이(虎食)가 되게 하는 일이며 그로인해 범의 허기를 채워주는 일을 하는 귀신이다.

위에서 살펴 본대로 창귀는 범의 절대적인 威勢에 屈服하여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범을 護衛하고 범에게 먹이(虎食)를 제공하는 任務를 맡고 있음을 그 이름에서조차 역력히 볼 수 있다.

7. 범과 土俗信仰

1) 山神으로서의 범

全國의 寺刹이나 名山에 있는 山神閣과 山靈閣 또는 山神堂에 가보면 예외없이 山神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에는 백발노인의 山神과 그 옆에는 꾸그리고 앉아있는 순하디 순하게 생긴 흡사 강아지 같은 범이 그려져 있다. 어떤 산신은 젊은 사람으로 어떤 산신은 늙은 사람으로 그려져 있는데 道教의 영향을 받은 듯한 옷 차림과 분위기가 道士나 神仙 같은 느낌을 준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범은 줄범인지 돈범인지 확연히 구분되지 않는 형태의 범으로 구분이 된다 하더라도 범으로서의 용맹이나 威嚴은 찾아볼 수 없는 애완동물로 보이는 고양이나 길들인 개와 같은 형상을 하고 있다.

이와같은 그림에서 범은 山神의 심부름꾼이나 山神을 護衛하는 役割 또는 山神을 태우고 다니는 말(馬)과 같은 역할이나 길을 지키는 개 처럼 山神의 居處를 지키는 짐승 정도로 표현되어 있다.

上古에는 범이 四神³⁾의 地位에 있었고 瀛國에서는 범을 神으로 모셨으니 魏志 東夷傳의 瀛條에 보면

「범을 神으로 모셔 제사 지낸다」(祭虎以爲神)

하였다.

이런 사람들은 이 대목이 범을 神으로 모신 유일한 기록이라 하고 2천년동안 그런 風習이 傳하지 않으니 記錄者의 착오거나 상상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李圭景의 五洲衍文長箋散稿의 祠虎辨證說에 보면

「백성들이 돈을 거두어 犧牲物과 술을 마련하여 마을의 鎭山에서 山君(범)에게 제사를 지낸다. 그때 두당이 어지러이 북을 치며 춤을 추어 마을의 安寧을 비는데 이것을 都堂祭라 한다. 만약 이때에 祭物이나 祭器 등이 불결하고 재계와 치상이 깨끗지 못하면 그날 밤에 반드시 범이 나타나 개와 돼지를 물어 간다」(小倅錄錢備性體祭山君於本里鎭山而巫覡扮若妓之舞之以安之名曰都堂祭若祭品不潔致齋未清則當夜虎必來咀齧狗豕而去)

3. 四神—四 方位를 맡은 神, 東蒼龍 西白虎 南朱雀 北玄武.

하였으며 또 말하길

「後漢書 識傳에 범을 神靈으로 모셔 제사한다 하였으니 그 같은 風俗의 由來한 바가 오래되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살아 있는 범을 神으로 삼았으니 그 제사가 능히 興旺되는 바가 있을 것인가」(後漢書 識傳 虎以爲神其俗之所由來者厥有久矣 然生虎爲神而能受饗者乎)

라고 하였으니 朝鮮 後期에도 民間에서는 범을 神으로 모셔 祭祀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太白山 地域으로 찾아오는 巫俗人들을 잡고 물어보면 거의 90% 정도가 범을 山神이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니 범은 2천년 전이나 2백년 전이나 오늘날 날에도 山神인 것이지 山神의 使者나 山神의 護衛者 또는 山神의 말(馬)은 아닌 것이다.

檀君神話에 범과 곰이 桓雄에게 와서 사람되기를 願하였다. 쑥과 마늘을 먹고 백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아야 사람이 된다는 말을 듣고 범과 곰이 시행하였으나 곰은 잘 참고 견디 女人이 되고 범은 禁忌를 어겨 사람이 되지 못하였다.

學者들 사이에서는 이 대목을 해석하여 곰 토텐 부족과 범 토텐 부족의 싸움에서 곰 부족이 이긴 것으로 풀이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좀 다른 방향에서 생각해 본다면 범은 上古에 四神의 地位에 있었다. 그러한 범이 곰과 함께 쑥과 마늘을 먹으며 禁忌를 지키는 과정에서 범은 神格에서 人格으로 格下되기를 거부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범은 끝까지 神의 地位를 고수하여 神으로 남길 願한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곰 부족이 이기고 범 부족이 진 것이 아니라 그 반대인 범 부족이 이기고 곰 부족이 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곰은 女人이 되어 男子의 服屬이 된 것이니 어찌 이겼다고 하겠으며 범은 그후 獨自의 길을 固守하여 영원히 山神으로 君臨하여 왔으니 어찌 졌다고 하겠는가? 龍은 그 자체가 龍王으로 神格化되어 神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반해, 佛敎나 道敎가 이땅에 들어와 固有信仰을 迎入하는 過程에서 神으로 모시던 범은 人格神 옆에 쭈그리고 앉아 勇猛과 威嚴을 잃은 심부름꾼 내지 護衛者의 자리로 밀려나 버린 것이다. 그래서 上古에 獸身의 山神이 人智의 發達과 外來宗敎의 影響으로 오늘날 寺刹이나 山神堂에서 볼 수 있는 人身의 山神으로 바뀐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佛敎나 그밖의 外來宗敎에서 보는 視角이지 우리 固有 巫俗信仰에서는 아직도 범은 山神 그 自體인 것이다.

龍이 想像의 靈獸로 神의 자리를 굳히고 있듯이 지금 이 땅에 범이 사라지고 없는 상황에서 범도 이런 想像의 靈獸로 또 다시 神의 자리를 되찾고 있는 것은 아닐까, 道士型의 山神이 범을 깔고 앉아 있는 것은 外來宗敎가 우리 固有 土俗信仰을 抑壓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사진 4〉 山神圖

출범인지 돈범인지 구분이 되지않는 순하디 순하게 생긴 애완동물과 같은 범 그림(한국호랑이에서 전제).

〈사진 5〉 山神圖

범은 산신의 호위자 또는 말(馬)과 같은 역할을 한다. 이 그림에서도 범을 山神이 걸터 앉은 것만 봐도 범은 山神의 馬인 것으로 표현됐다(한국호랑이에서 전제).



2) 범과 民間信俗

범은 영험스런 靈獸로 民間에서는 山神의 使者로 보거나 山神 그 자체로 보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인지 動物學的인 常識을 벗어난 奇異하고 神秘한 이야기들이 많다. 범을 그냥 보통 동물로 보지 않고 神과 同格 내지 그와 비슷한 수준의 神靈한 存在로 보는 것이다. 약 30년 밖에 살지 못하는 범을 몇 백년 혹은 몇 천년 사는 것으로 믿고 있으며 몸이 날렵하여 계곡과 큰 강을 뛰어 건너며 범이 달릴때 큰 바람이 인다고 믿는다.

民間에 퍼져 있는 범에 대한 여러가지 信俗과 이야기를 적어 본다.

- 사람이 범에게 잡아 먹히면 그 靈魂이 창귀가 되어 범의 노예(종)가 되는데 그 범이 죽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잡혀 먹히야 그 혼이 빠져 나온다고 한다. 옛사람들은 범이 몇백 또는 몇 천년 사는 것으로 알았다. 그래서 범이 죽기를 기다리지 못하고 또 다른 사람을 잡아 먹히게(다리놓기) 하고 범의 威壓에서 종(隸)처럼 얹매어 있던 그 굴레에서 벗어나게 된다고 한다.

- 山神(범)이나 山神의 使者(범)를 욕보이면 벌을 받는다고 한다(虎患의 事例 1, 2, 32번)

- 범에게 잡혀갈 사람은 이미 어쩔 수 없이 정해진(숙명적) 것으로 판자 소관이며 虎食은 피할 수 없고 어떤 형태로는 構를 입게 된다고 한다(事例 10번).

- 범은 사람을 물고 가지 않고 앞세워 걸려 간다고 한다. 사람이 창귀의 부름을 듣고 범에게 제발로 걸어가 잡아 먹힌다는 것이다(事例 20, 29번).

- 범은 사람을 물어 등에 업고 간다고 한다. 그래서 범에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다.

옛날 어떤 사람이 범에 물려 가는데 얼마나 가다보니 선뜩선뜩한 찬바람이 켜전을 스치기에 정신을 차려보니 범이 자기를 업고 가는 것이었다. 얼른 지나가는 길옆의 나무가지를 잡고 나무 꼭대기로 올라가 虎患을 면했다고 한다.

- 범은 사람이 여럿 자고 있어도 가운데 사람을 물고 간다. 길을 가도 가운데 서서 가는 사람을 물고 간다고 한다. 그래서 팔자소관이라고 한다. 대개 밤길을 갈때 맨 앞쪽과 맨 뒤쪽에 서기를 싫어한다. 그러한 심리를 없애려 하는 말인지도 모르겠다(事例 10, 16번).

- 山神靈이 범을 내쫓아 사람을 물어가며 아무나 물어가지 않는다고 한다.

- 범은 사람을 한명 잡아 먹으면 귀끝이 하나 갈라지고 두명을 잡아 먹으면 귀끝이 두번 갈라진다고 한다. 귀끝이 많이 갈라진 놀일수록 사람을 많이 잡아 먹은 놈이다

松南雜識에 보면

「범이 사람을 잡아 먹을것 같으면 그 귀가 갈라진다」(食人則其耳輒裂)

라고 한 것을 봐도 사람들은 그리 믿었는가 보다.

- 창귀는 사돈의 팔촌까지 찾아다니며 말썽(害惡)을 피운다고 한다. 그래서 집 안에 한명이라도 虎食되어 간 사람이 있으면 나머지 親族들이 전전궁궁한다.

- 虎食을 虎隊 또는 虎嘯이라고도 하며 地域에 따라 산홍사 또는 외홍사 홍살이라고도 하는데 그 외홍사 한 집과는 婚姻을 맺지 않는다. 즉 사돈을 정하지 않는다고 한다. 창귀는 사돈의 팔촌까지 찾아다니며 혼코지를 한다고 믿기에 그러한 禁忌가 생겨난 것 같다.

- 범은 사람을 앞발로 쳐서 왼쪽으로 넘어지면 잡아먹지 않고 오른쪽으로 넘어지면 잡아 먹는다고 한다. 짐승도 마찬가지다.

- 범은 사람을 잡아 먹되 머리는 남겨두는데 남겨둔 머리의 머리털을 혀로 짹짹 핏아 원가리마로 빗어 놓는다고 한다(事例 4, 19).

- 범은 喪主를 잡아 먹지 않는다고 한다. 왜냐하면 喪主는 신성한 사람으로 죽은 영혼을 위해 儀式을 올리므로 해치지 않는다고 한다. 그렇지만 배고픈 범이 喪主라고 봐 줄리가 있겠는가(事例 18).

- 범은 문둥이를 잡아 먹지 않는다고 한다. 문둥병은 天刑이라 범이 건드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海東異蹟의 權眞人條에 보면 尙州 사람인 權眞人이 어렸을때 문둥병에 걸려 죽게 되자 父母가 술에 비웠다. 범이 나타나 太白山으로 물고 가서 범굴 속에서 같이 지내며 잡아먹지는 않았다. 범굴 근처의 奇異한 藥草를 먹고 살아난 후 異人을 만나 神仙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범은 지저분한 먹이나 병든 짐승을 먹지 않는 까닭일 것이다.

- 뱀에게 물려 죽는 사람도 역시 虎食 되어갈 팔자라서 虎食 대신 뱀(蛇)에게 물려 죽는다는 것이다.

- 범이 잡아 먹은 사람의 다리나 팔을 하나 떼어 놓고 가면 그 집안에는 또 다른 사람이 호식되어 간다고 한다.

- 山間 마을에서는 절대로 범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범 이야기를 하면 정말 범이 나타나 사람을 물고 간다는 것이다. 범도 제말하면 나타난다는 俗談처럼 말이다.

上東읍의 신대골 어귀의 虎食도 이러한 禁忌를 어겼기 때문에 잡아 먹혔다는 것이다(事例 22).

● 범도 사람을 물고가서 山神이 먹이라 해야 먹고 그렇지 않으면 물어다 놓기만 하고 먹지는 않는다고 한다(事例 27).

● 고양이가 쥐를 잡아서 설 죽인 다음 가지고 놀다가 잡아 먹듯, 범도 사람을 물고가서 빵을 치며 놀리다가 잡아먹는다고 한다. 고양이과 짐승들은 먹이를 금방 잡아 먹지 않고 한참 애를 말리다가 스스로 탈진하여 쓰러지면 잡아 먹는다고 한다.

우리 속담에 범에 물려 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말이 있다. 범이 완전히 죽이지 않고 놀리다가 잡아 먹는 습관이 있기에 그 때 정신을 차리면 살 수도 있다는 이야기 인지도 모르겠다(事例 30).

● 범은 물레 돌아가는 소리를 싫어한다. 방안에 있는 여인을 잡아 먹으려 해도 밤새도록 돌아가는 물레 소리때문에 잡아 먹지 못한다고 한다. 어떤 범은 물레 소리를 따라 와릉와릉하며 흥내를 낸다고 한다.

● 太白山 부근의 마을에서는 밤에 밖에서 누가 부르면 함부로 대답하거나 나가 지 않는다. 적어도 세번 이상 불러야 대답하고 한번이나 두번까지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다. 혹시 창귀가 부르는 소리일지 모르기 때문이다. 귀신은 세번 이상 사람을 부르 지 않는다. 그래서 세번이상 불러야 안심하고 대답하게 된다.

● 범은 제 새끼를 귀여워 해주면 좋아서 어쩔줄 몰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제 새끼를 미워하면 몹시 싫어한다고 한다.



〈사진 6〉 山神符籙 판화(鄭道和 소장, 한국효당에서 전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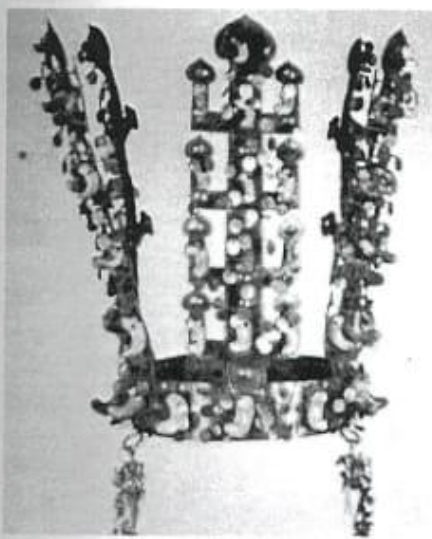
人身山神이 아닌 獸身 山神으로서의 범, 千災가 눈 녹듯 사라지게 하고 萬福이 구름일어나듯 해준다는 뜻의 부적으로 범의 능력과 신비한 조화를 얻었던것 같다.

三陟郡 理川의 대삼이에서 여인 10여명이 山에 나물 뜯으러 갔었다. 큰 바위 밑에서 예쁜 고양이 새끼를 보고 여럿이 귀엽다고 쓰다듬어 주었다. 어떤 사람은 밍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귀엽다고 하였다. 이때 바위 위에서 범이 나타나 "어흥"하였다. 그것은 고양이 새끼가 아니라 범의 새끼였으며 범은 제 새끼를 귀여워 해주니 좋다고 "어흥"한 것이다. 모두 놀라서 나물 보따리를 버리고 혼비백산하여 집으로 도망 왔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간밤에 범이 나물 보따리를 마당에 갖다 놓았더라고 한다. 그것은 제 새끼를 귀여워 해준 댓가로 미안한 마음에 보따리를 가져다 준 것이다. 그러나 제 새끼를 밍다고 한 사람의 나물보따리는 갈기갈기 찢어 버렸더라는 이야기가 있다.

이와 유사한 이야기가 東海市 新興洞에도 전해진다.

● 무엇이든지 크고 오래된 것은 靈이 있어 神의 所作이라 믿으며 그것을 함부로 먹거나 해치면 큰 벌을 받는다고 한다. 큰 산삼, 큰 더덕, 큰 도라지, 큰 송이, 큰 땀, 큰 고기, 큰 나무 등등 오래 묵거나 큰 것은 靈이 있고 神이 아끼는 물건이라 그것을 함부로 먹거나 다치게 하지 않는것이 山間 마을의 풍습이다. 그것을 어기면 벌을 받는다.

奉化郡 大峴里 어드벵이 虎食도 山神의 靈物인 큰 호랑송이를 함부로 따 먹었으니 벌을 받아 그렇다는 것이다.



〈사진 7〉

신라금관의 曲玉은 범의 이빨이나 발톱을 형상화한 것이다.

● 범은 오래 묵으면 사람으로 둔갑한다고 한다. 新羅 때 金現은 女子로 변신한 범과 사랑을 하였으며 그밖에 傳說에 僧(僧)으로 변신한 범 이야기가 많다.

● 범의 이빨이나 발톱을 몸에 지니고 다니면 모든 惡鬼가 사라지고 邪惡함으로부터 몸을 보호한다고 한다. 雄勇壯猛한 범의 이빨이나 발톱은 힘과 지혜와 절대자의 의미를 포함하고 邪惡하고 雜된 무리의 犯接을 막는 뜻도 포함되어 있다.

바닷가 사람들은 상어 이빨을 極地方사람들은 곰의 발톱을 護身用 符籙으로 지니고 다닌다. 우리는 예로부터 범의 이빨이나 발톱을 護身用 符籙으로 간직했다.

新羅時代의 金冠이나 腰帶의 曲玉도 범이나 곰의 이빨 또는 발톱을 形象化한 것으로 王權의 權威와 無私公正한 統治와 邪惡함을 물리치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겠다. 太古때 진짜 범의 이빨이나 발톱을 간직하던 遺風이 曲玉을 이빨 모양으로 만들어 王冠에 달므로써 王權의 權威를 상징하게 된 것이라 생각한다.

8. 虎食과 팔죽

1) 팔 죽

사람이 팔죽을 쑤어 먹은지는 참으로 오래된 것 같다.

東國歲時記에 보면

「생라컨대 荆楚歲時記에 이르기를 “共工氏가 계수없는 아들을 하나 두었는데 그 아들이 동짓날에 죽어 疫疾鬼神이 되었다. 그 귀신이 붉은 팔을 두려워 했으므로 동짓날 팔죽을 쑤어 물리치는 것이라 하였다.”(按荆楚歲時記共工氏有不才子以冬至死爲疫鬼畏赤小豆故冬至日作粥以禳之)」

라고 한 것을 보면 四千年 前부터 팔죽을 쑤어 먹은 것으로 짐작하겠다.

팔죽을 많이 쑤어 먹는 계절은 冬至때 인데 역시 東國歲時記의 冬至 풍습에 보면

「동짓날을 亞歲라 한다. 팔죽을 쑤는데 찹쌀 가루로 새알 모양으로 떡을 만들어 끓는 죽속에 넣어 새알 심을 만들고 꿀을 타서 시절 음식으로 삼아 제사에 쓴다. 그리고 팔죽을 문짝에 뿌려 상서롭지 못한 것을 제거한다」(冬至日亞歲煮赤豆粥用糯米粉作鳥卵狀投其中爲心和蜜以時食供祀臘豆汁於門板以除不祥)

라고 하였다. 붉은 팔을 삶아 으깨어 큰 솥에 넣고 푹게 끓인 다음 쌀을 넣어 더욱 끓인다. 마지막에 새알 심을 넣어 걸죽한 죽으로 만들어 내는데 그 빛이 붉으스레 하다. 지금도 冬至때만 되면 집집마다 팔죽을 쑤어 먹는 데 그 옛날에는 꼭 동지 때만 팔죽을 쑤어 먹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팔죽을 쑤어 먹고 正月과 三伏 때도 팔죽을 쑤어 먹었다.

洞陽歲時記의 伏日에 보면

「개를 잡아 삶아 국을 끓여 陽氣를 돕고 팔죽으로서 穢夜를 豫防한다」(烹狗爲羹以助陽煮豆粥以穢穢)

라고 했고 東國歲時記에도

「붉은 팔로 죽을 쑤어 初, 中, 末伏에 먹는다」(煮赤小豆粥以爲食三伏皆如之)

라고 했으니 年中 팔죽을 쑤어 먹었음을 알겠다.

4. 共工氏—中國堯舜時代의 刑罰을 맡았던 사람으로 神話의 존재이다. 共工은 官職名인데 후에 姓이 되었다.

太白山域에는 약 15년 前만 해도 이웃에 初喪이 나면 팔죽을 쑤어 한 동이 씹 扶助하는 風習이 있었다. 그리고 한 겨울에도 한 여름에도 팔죽을 자주 쑤어 먹었다.

2) 팔죽의 辟邪逐鬼 機能

팔죽을 쑤어 먹는 데는 두 가지 뜻이 있다. 그 첫째는 음식으로서 主食으로 먹는 것이며 둘째는 逐鬼辟邪의 의미가 있다.

대체로 邪惡한 귀신은 붉은 색깔을 싫어한다고 한다. 그래서 붉은색의 물건으로 액막이(防厄)를 하는데 붉은색 나무로 家具類를 만들기도 하고 붉은 팔로 떡을 만들어 祭祀하므로 인해 邪惡함을 물리친다고 믿었다.

例陽歲時記의 除夕에 보면

「백성들 사이에는 간혹 잘 만든 붉은 주머니를 찬다」(閭巷間或盛絳黃囊之)

라고 하여 辟邪를 하기위해 붉은 주머니를 차고 다닌 것을 알겠다.

東國歲時記의 端午에도

「觀象監에서는 朱砂로 天中節의 붉은 符籙을 박아 대궐안으로 올리고 대궐에서는 그것을 문 실주에 붙여 불길한 災厄을 막게 한다」(觀象監朱砂福天中赤符連于大內貼門細以除邪祥)

라고 했고 十月에는

「붉은 팔로 시루떡을 만들어 외양간에 갖다 놓고 神에게 기도하여 말(馬)이 건강하기를 빈다」(赤豆煎餅設殿中以請神祝其馬健)

하였으며 또한 붉은 팔로 시루떡을 만들어 廟望奠에 올리기도 하고 아무때나 神에게 빌때도 사용한다고 했다.

共工氏의 아들이 죽어 疫鬼가 되었는데 그 귀신이 붉은 팔을 싫어 하기에 팔죽을 쑤어 그 귀신을 물리 친다고 하는것은 팔의 붉은 색깔이 逐鬼辟邪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위에서 살펴 본대로 붉은 색은 모두 逐鬼辟邪의 의미가 있음을 알겠다. 그것이 나무든 부적이든 떡이든 주머니든 죽이든 간에 붉은 빛을 띠는 것은 모두 邪惡함을 물리치는 힘이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사람의 病은 飲食에서 起因되는 것이 많기에 그 음식을 붉은 팔로 만들어 먹음으로써 養生과 疾病에방을 함께 한것이라 보겠다. 漢方에서는 팔을 心藏에 좋다고 했고 解毒作用과 排膿消腫과 痢疾과 脚氣病에 特效가 있다고 하니 팔이 갖는 붉은 빛과 팔죽 자체에서 질병을 치유하는 성분이 있다고 보겠다.

太白山域에서는 初喪이 나면 팔죽을 쑤어 한 동이 씹 扶助를 하는데 成服후에 들어오는 팔죽은 喪主가 사립 밖에서 되받아 동이 새로 매어져 버린다. 이웃에서 成服前에 들어온 팔죽이 몇 십 동이가 되는데 초상치를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팔죽으로 끼니를 때우며 일을 한다. 初喪집에 팔죽을 扶助하는 것은 동네에 또 다른 초상이 나지 않게 하기 위한 양밥(防厄)이라 한다. 이렇듯 팔죽은 日常 飲食으로 먹지마는 그 속에는 항상 辟邪의 의미가 숨어 있다.

또 다른 예로 어찌다 殯所의 말 때문에 말(病)이 난 경우(환자가 占을 쳐 보아 殯所의 말이라는 占卦가 나왔을 때)에는 팔죽을 쑤어 빈소에 갖다 놓고 喪主는 哭을 하고 말이 난 사람은 그 앞에서 빈다. 그러면 병이 낫는다고 하며 殯所의 말에는 팔죽이 아니면 낫지 않는다고 한다.

3) 虎食과 팔죽

虎食되어 간 사람이 있는 집에서는 그 사람의 제사날에 팔죽을 祭物로 해서 祭祀를 지낸다. 祭祀床에 別다른 祭物은 쓰지 않고 팔죽을 동이 세 떠다 놓고 제사를 지낸다. 제사가 끝난 다음 팔죽을 동이 세로 뒷걸이나담장부근에놔 두면 처음엔 벌이 먹고 간다고 한다. 어떤 경우에는 동이에 팔죽을 담아 놓고 그 위에 무치 술뚜껑을 덮어 놓는데 벌이 와서 술뚜껑을 열고 팔죽을 다 먹고 다시 술뚜껑을 덮어 놓는다고도 한다. 또한 제사를 지낸후 팔죽을 집 주위와 담장에 뿌리기도 한다.

銅店洞의 黔氏네 집이 先代에 虎食되어 간사람이 있는데 祭祀 때만 되면 팔죽을 쑤어 祭祀를 하는데 팔죽 동이를담장부근에놓아 두면 처음엔 벌이 먹고 갔다고 한다. 지금도 제사 때 팔죽제사를 지내는데 지금은 벌이 팔죽을 먹고 가지 않는다고 한다.

옛날 동점 마을에 벌이 사람을 물어 갔다. 동네 사람들이 햇불을 들고 찾아 나서니 벌이 시체를 뜯어 먹다가 도망을 가고 사람들은 남은 시체를 가져와 땅에 묻어 묘를 만들었다. 그날 밤 부터 벌이 나타나 온 동네의 가축을 물어 죽이고 모래와 돌을 퍼부으며 포효하였다. 매일 그러니 동네 사람들은 공포에 떨며 밤이면 밖에 나가 지를 못하였다. 마을의 노인들이 회의를 하고 점을 치니 벌의 먹이(죽은 사람의 시

5. 成服-初喪이 난 뒤에 상제와 복인들이 처음으로 喪服을 입는것.

6. 殯所-發柩때까지 棺을 놓아두는 방, 또는 大祥까지 죽은 사람의 영혼을 모셔놓은 곳. 대개 사람방에 설치함.

체)를 가로챌 별로 범이 害惡을 한다는 화가 나왔다. 그래서 마을에 굶을 하기로 하고 범의 노여움을 달래기로 하였다. 제웅을 만들어 소꼬리를 달아 세우고 그 앞에 큰 동이에 팔죽을 담아 범이 다니는 길목에 놓아 두었다. 소꼬리는 사람의 머리며 팔죽은 사람의 몸을 대신한 것이라 한다. 기도들 드린후 범이 팔죽을 먹고 갔는데 그 후로는 조용하였다고 한다.

범은 팔죽을 좋아하는가 보다. 전해오는 이야기에 어떤 할머니가 밭에서 김을 매는데 범이 나타나 잡아먹으려 했다. 할머니는 바싹 마른 나물 잡아 먹어 무엇하느냐 이따가 저녁때 팔죽을 쑤어 놓을테니 그때 와서 팔죽과 함께 나물 잡아 먹는것이 어떠냐고 했다. 범이 끝이 듣고 밭에 왔다가 할머니의 피에 혼이난 이야기가 있다. 이 밖에도 범이 팔죽을 좋아한다는 이야기는 많다. 무엇 때문에 범은 팔죽을 좋아하고 사람들은 虎食되었을때 팔죽으로 祭祀 지낼까?

첫째 그것은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팔죽은 逐鬼辟邪의 의미가 있기에 두번 다시 虎食되어 가지 말라는 의미에서 제 2의 虎食을 豫防하기 위해 팔죽으로 祭祀한다고 보겠으며 둘째 범에게 팔죽으로 제사하고 범은 그 팔죽을 먹고 간다는 것은 연약한人間이 太古때 범에게 犧牲物을 바치던 習俗이 남아 오늘날 희생물 대신 그것이 팔죽으로 변한 것이 아닐까 한다. 그렇기에 범이 팔죽을 먹는다고 하며 실제로 팔죽을 쑤어 범에게 제사하는 風習이 있으니 太古때의 遺習이 아닐까 하며 이것이 범에게 犧牲物을 바치던 것과 무관치는 않으리라 본다.

II. 虎食葬

序論
遺軀의 發見
火葬
돌무덤
시루
가락
結論

II. 虎食葬

1. 序 論

범이 사람을 잡아 먹는 것을 虎食이라고 한다. 범은 사람을 잡아 먹고는 꼭 머리를 남겨 둔다고 하며 때로는 팔 다리 또는 몸통의 일부분도 남겨 놓는다고 한다. 이것(특히 머리 부분)들을 거두어 특유의 風習으로 葬事지내는 것을 虎食葬이라고 한다.

사람이 죽어 땅에 묻으면 埋葬이요 불에 태우면 火葬이며 물에 넣어 고기밥이 되게 하면 水葬이다. 새에게 뜯어 먹히게 하는 것은 鳥葬이라 하며 自然에 방치하여 비바람에 썩게 하는 것을 風葬이라고 한다. 이렇듯 다양한 葬禮風習이 存在하는 것은 地域의 特性과 環境 그리고 사람들의 來世觀 또는 宗教觀 등이 크게 작용하여 생긴 것이라고 보겠다.

虎食葬은 범이 서식하는 곳에서만 행하여 지는 葬禮風習으로 사람이 범에게 잡아 먹히지만 성립이 되는 것이다. 地域에 따라 虎食葬 무덤 즉 虎食塚을 火葬터 혹은 홍살터, 산홍사터, 범다물, 虎臥터, 虎食터, 虎喰터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山岳이 많은 곳으로 범이 서식하기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어 예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虎患을 당하였고 그 가운데 대부분이 虎食되어 버렸다. 그래서 全國의 平野地帶를 除外한 山岳地帶에 虎食의 事例가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그 피해가 막심하였다.

本文은 特別 太白山脈의 中樞이자 母山인 太白山을 中心으로 江原道의 太白, 旌善, 三陟, 寧越, 東海의 五個市群과 慶尙北道 奉化, 蔚珍의 2個郡 등 總七個 市郡과 그밖의 地域에 흩어져 있는 虎食塚을 對象으로 調査 研究한 것이다.

虎食葬은 범이 사람을 잡아 먹고 남긴 遺骸를 거두어 그 자리(범이 사람을 잡아 먹은 자리)에서 火葬을 한 다음 그 위에 돌 무덤을 만들고 그 돌무덤 위에 시루(떡이나 음식을 쪄는 그릇)를 얹어 놓고 그 시루의 가운데 구멍에 가락(물레로 설을 자을 때 사용하는 뾰족한 쇠꼬챙이)이나 칼을 꽂아 놓는 特異한 形態의 무덤을 만드는 葬禮法이다. 그 特異한 形態의 무덤을 虎食塚이라 하는데, 여기에서는 왜 火葬을 하고 돌무덤을 만들고 시루를 얹어 놓으며 가락이나 칼을 꽂아 두느냐 하는데 焦點을 맞추어 考察하여 보고자 한다.



〈사진 8〉 호랑이에 물린 여인

어느 으슥한 산길, 광주리를 들고 가던 여인이 호랑이의 습격으로 피루성이 되었다. 산등성으로 총을 든 남자들이 여인을 구하러 달려오지만 이미 여인의 목숨은 끊어진 상태다. 당시 호랑이들에게 피해를 입고있는 한국과 중국의 이야기는 프랑스 사람들에게 재미있는 화제가 되었다. (르 프티 주르날紙 1914년 3월 15일)

2. 遺軀의 發見

범은 사람을 잡아 먹고는 꼭 表式을 남긴다고 한다. 특히 머리 부분을 먹지 않고 나무 등걸 위나 바위 위 또는 山頂성이 높은 곳에 남겨 놓는데 그것은 山神에게 虎食 당할 運命의 사람을 잡아 먹었다고 아뢰는 의식이라고 한다. 대개 肉食動物은 먹이의 머리 부분은 먹지 않는데 아프리카의 草原에서도 猛獸類는 먹이를 먹되 머리 부분은 먹지 않는다.

芝峰類說에 보면

「비사에 이르기를 범의 이름은 李耳이다. 보통 범은 인축을 잡아 먹되 귀(耳) 위로는 먹지 않으니 그것은 제 이름을 범하기 싫어서 이다.」(稗史曰虎名李耳凡虎食畜產不至耳諱其名也)

라고 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松南雜識에도 나오는데

「虎以其名李耳故凡食獸不食耳諱其名也」

라고 하였다.

결국 범은 먹이의 머리는 먹지 않고 남긴다는 말인데, 그것은 범의 이름이 李耳라 하여 자기 이름자인 耳(귀)를 범하기 싫어서 먹이의 귀(耳) 위로는 먹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실 짐승의 머리뼈는 몹시 아물어 딱딱하고 큰 뼈라서(대개 草食동물은 뿔이 있어서) 범이 씹어 먹을 수 없기에 남기는 것이다.



〈사진 9〉

고양이가 쥐를 잡아먹고 남긴 머리와 꼬리 부분

범이 귀 위로는 먹지 않는다고 하나 우리나라 처럼 먹이가 풍족치 못한 환경에서는 例外가 있다. 범도 배가 덜 부르면 귀고 뺄고 가리지 않는다. 어떤 범은 배가 덜 부르니 불에 붙은 살점과 귀와 코까지 뜯어 먹고 뽕뽕뽕뽕한 頭蓋骨만 남겨 두는 경우도 더러 있다고 한다. 고양이와 쥐의 경우에도 고양이는 쥐의 몸등이는 모두 먹고 머리를 남기는데 때론 꼬리와 발도 남긴다.

虎食 당한 곳에는 대개 죽은 사람의 머리만 남아 있는 것이 보통이나 때로는 팔, 다리, 몸통의 일부도 함께 남아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遺軀를 遺族들이 발견하여 그 자리에다 횡단불을 피우고 태우게 된다.

3. 火 葬

虎食葬의 火葬은 一見 佛教의 영향을 받은듯하나 실은 우리 민족에게도 불을 神聖視 하는 風習이 있었다. 不淨하고 邪惡한 것을 없애는데 성스런 불을 사용했으니 무당이 不淨을 털기위해 불을 피워놓고 그 위를 타넘는 行爲는 불로써 不淨함을 없애려는 것이다. 燒紙를 올리는 것은 불로서 厄을 태우고 所願을 비는 것이요 시집 갈 때 불씨를 가져가서 평생 커뜨리지 않는 것은 富와 家運의 상징이며 불을 신성시 한다. 열병, 피절 등의 惡疾에 걸려 죽은 사람을 태워 비림은 사악함을 없애려는 뜻인 것이다. 분동병에 걸려 죽은 사람을 火葬하는 것도 같은 뜻이 있다.

범이 사람을 물고가서 잡아 먹은 다음에 남은 遺軀를 遺族이 發見하여 그 자리에서 태워버리는 것도 모든 禍根을 消滅시키고자 하는 뜻이 담겨있다.

범에게 잡아 먹힌 사람의 魂은 창귀라는 귀신이 되어 사돈의 팔촌까지 찾아 다니며 제앙을 주고 또 다른 虎食의 다리(물귀신 처럼 또 다른 사람이 잡아 먹히자 그곳에서 빠져 나온다는 뜻)를 놓는다고 믿었다. 황닥불을 피우고 남은 遺軀를 태우는 것은 그 창귀를 완전히 없앤다는 뜻이 있다. 그 屍身을 그냥 묻으면 창귀가 害惡을 하고 범이 자기 먹이를 빼앗아 가는줄 알고 해꼬지를 한다고 믿었다. 어떤 경우 남은 遺軀를 그냥 묻었더니 밤에 범이 나타나 땅을 파내고 그 시신을 다시 꺼내어 갔더라는 이야기도 있다. 그래서 遺軀를 거두어 태우는 것은 두번이나 범의 밥이 되는 것을 막고 남긴 먹이를 범이 두려워 하는 불로서 태움으로써 모든 제앙을 없애려는 것이다. 遺軀를 태울 때는 발견된 그 자리에서 하고 절대로 옮기지 않는다.

4. 虎食塚(돌무덤, 뱀다물)

범에게 잡아 먹히고 남은 遺軀를 火葬하니 모든 것이 消滅되어 한 줌의 재로 남았다. 그 위에 자연석을 주워다 돌무덤을 만든다. 이것이 虎食塚이다. 돌이 많은 곳에서는 한 길 가랑되는 큰 돌무덤을 만들지만 돌이 귀한 곳에서는 몇 개의 돌을 포개어 놓는 정도로 돌무덤을 만든다. 큰 것은 높이 160cm, 둘레 800cm, 길이 280cm, 폭 200cm 가랑되는 큰 것이 있는가 하면 높이 50cm, 둘레 160cm, 폭 50cm 정도의 작은 것도 있고 몇개의 돌을 포개어 놓은 것과 아예 돌도 없는 것이 있다.

여기에서 虎食塚의 돌무덤과 성황당(城隍堂 서낭당)의 돌무더기나 造山, 그리고 蒙古地方의 鄂博(어뵈)와 어떤 연관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며 이것을 밝혀 봄으로써 虎食塚에 어찌하여 돌무덤을 쌓는지에 대해 접근하여 보고자 한다.

1) 성황당(城隍堂, 쿠시, 국수당)

마을 어귀의 길 옆이나 고개마루에 城隍堂이란 것이 있다. 서낭당 또는 先王堂, 쿠시, 掬水堂, 국시당이 등으로 불리어 지기도 하는데 대개는 큰 고목나무가 몇 그루 서 있고 그 앞에는 크고 작은 돌들을 쌓아 놓은 돌무더기가 있다. 어떤 곳에는 나무가 없고 돌무더기만 있는 곳도 있다. 또 다른 형태로는 돌담이 쳐져 있기도 하고 堂宇를 지어 城隍神을 모신 곳도 있다.

城隍堂은 마을의 三災를 막아주며 마을 사람들에게 福과 豐饒를 가져다 주는 城隍神이 머무는 聖域인 것이다. 고개마루에 있는 것은 길손들이 嶺路의 無事安全을 祈願하는 곳으로 부근에 있는 돌을 주워 던지며 침을 뱉기도 한다. 침을 뱉는 것은 邪惡함과 不淨함을 털어내는 뜻이 있다. 지금도 까마귀가 울면 돼뿔하며 침을 뱉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한다.

서낭당(국시당)의 돌무더기는 蒙古地域의 鄂博(어뵈)에서 由來되었다는 說이 유력하고 孫善泰는 서낭당의 돌무더기를 石積長生이라고 분류한바 있다.

2) 蒙古의 鄂博(어뵈)

몽고지역에 “어뵈”(鄂博) 혹은 “오보”(オボ)라는 것이 있다. 自然石으로 쌓은 돌무더기로 우리나라의 城隍堂의 돌무더기와 造山(長生標塔)과 비슷하다. 그것은 境界標와 里程標의 역할도 하지만 蒙古人들이 天地神靈에게 祭祀하는 곳이다. 鄂博은 盛土라는 뜻의 말로 돌이 많은 곳에서는 돌로 쌓고 돌이 없는 곳에서는 흙으로 盛土하며 都市 부근에서는 돌로 담을 치는데 2m 정도되는 비드나무 3~40개를 묶어 그 위에 세운다. 오보(オボ)를 설치하는 장소는 높은 산꼭대기나 언덕 위와 평원, 湖水가 등에 세우는데 매년 봄에 오보(オボ)를 보수하고 오보제(オボ祭)를 지낸다. 이때

黃紅白藍色의 旗를 오보 위에 꽂는다. 오보제(オボ祭)는 그들의 吉凶禍福과 家畜 繁昌, 無病, 運災 등을 祈願하는데 太陽崇拜思想이 內在되어 있다고 한다.⁷⁾

역시 우리의 城隍堂의 돌무더기나 造山과 通한다고 보겠다.

3) 造 山

우리나라 全域에 돌이나 흙으로 된 造山이란 人爲的인 構造物이 分布되어 있다. 어떤 곳에서는 自然的인 작은 산을 또는 언덕을 造山이라고 하는 곳도 있다. 頭滿江 河口的 造山浦의 造山과 襄陽의 造山, 三陟의 造山, 安東, 永川地方의 造山 등은 형태와 크기의 차이는 있으나 모두가 서낭(성황)과 같은 機能을 가진 構造物이다. 朝鮮民俗誌(秋葉 隆)에는 造山을 長生標塔이라고 하였으며 蒙古의 鄂博와 연관이 있음을 示唆하였다.

安東地方에서 380년 전에 刊行된 永嘉誌에 보면 安東地方에 造山이란 것이 무려 20여개가 있었다고 記錄하고 있다. 거개는 길 옆이나 고개마루에 있으며 때로는 官廳 옆에도 있다고 하였다. 造山은 人爲的으로 만든 산이란 뜻인데 그 모양은 蒙古의 鄂博(어뵈)와 비슷하고 城隍堂의 돌무더기와 비슷하다. 다만 城隍堂의 돌무더기는 함부로 쌓여 있는데 반해 造山은 正성들여 탐처럼 쌓은 것이 다르다. 성황당의 돌무더기는 行人들이 돌을 자꾸 던짐으로써 몇년 몇십년 동안에 이루어 지는데 反하여 造山은 한번에 돌을 모아 쌓아 놓고 더 이상 손대지 않는 것이 다르다. 造山도 城隍堂 처럼 三災를 막아주며 마을의 豐饒와 安寧을 가져다 주는 마을의 守護神을 모신 곳이다.

⁸⁾永嘉誌의 개목이 조산(大項造山)에 보면

「立春日에 獻官을 정하여 東皇에 祭祀한다. 제사날에 五穀을 그릇에 담아 차려 놓고 제사를 지낸 뒤 어떤 곡식이 윤기가 나는지 관찰하여 그 해 그 곡식이 잘 되리라는 것을 점친다」(大項造山. 在迎春亭西大路東 立春日定獻官祭東皇于此祭日盛五穀種子器置其上觀其穀滋潤者占其茂實云)

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보듯 造山은 豐饒와 生産을 主管하여 주는 神을 祭祀하는 곳이며 또는 그러한 神이 있는 곳이라 여겨진다. 尊堂造山에 보면

「安東府의 地形이 배 모양(行舟形)으로 생겼는데 尊堂造山은 그 배가 때내려 가지 못하게 붙들어 매어 놓는 섬(島)과 같은 곳이다. 그 속에 金鐵을 묻어 놓아서 金의 氣運이 旺盛하다. 옛날 府에 어떤 官吏가 있어 尊堂造山속의 쇠를 캐내어 가지고자 造山을 헐었더니 대낮에 갑자기 비 바람이 크게 일어났다. 결국 그 쇠를 캐내지 못하고 말았다」(尊堂造山. 在慕恩樓西跡의 里南府基行舟形此造山象盤舟之島與埋金鐵以旺金氣云 古有一府官欲取鐵掘破時白晝晦冥風雨大作竟不能掘取云)

고 하였다.

이 대목에서는 造山이란 神聖한 곳으로 함부로 건드리면 안된다는 뜻이 있고 또한 造山은 風水學에서 空하고 虛한 곳을 鎮壓하여 주는 역할도 한다고 보겠다(一直造山. 五 皆在縣西洞二里許鎮其空虛云).

위의 여러 造山에 대한 記錄을 살펴 본 결과 造山은 城隍과 같은 類型으로 機能 또한 비슷하며 鄂博와도 서로 通하는 점이 있다고 보겠다.

4) 돌은 神의 造物

우리나라 山間 마을이나 깊은 산속 경치 좋은 곳에 가면 큰 바위에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바위에 자식의 이름을 팔고 무병장수를 비는가 하면 性器처럼 생긴 바위에는 得男을 빌기도 한다. 고인돌, 造山, 城隍堂의 돌무더기, 虎食塚의 돌담, 돌담 등도 모두 돌에 祈願하는 風習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틀어 岩石崇拜思想이라고 할 수 있다.

옛 사람들은 큰 바위에 神의 精氣가 있다고 믿어 바위 자체를 살(神)로 불렀다. 지금도 바위의 脉을 설이라고 부르고 돌담을 설담으로 부르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살에서 설로 부르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物理論에 보면

「돌(石)은 흙(땅, 塲神)의 精氣로 山의 뼈대(骨幹)요 모든 땅의 氣가 모인 씨(核)와 같은 것이다」(石. 土精爲山骨氣之核也)

라고 하였다. 그러기에 돌은 神이 만든 自然物(創造物) 가운데 가장 단단하고 剛하며 변하지 않는 精物이며 神物로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위대한 것이다. 그래서 예로부터 神聖한 存在로 여겨 선돌, 고인돌, 돌祭壇, 돌무덤을 만드는데 사용되었고奇怪하고 큰 바위는 信仰의 對象物이 되어 왔던 것이다.

사람은 돌의 剛함과 변하지 않는 性質을 神聖視하여 巨岩崇拜思想이 싹트고 그 돌을 利用하여 武器도 만들고 연장도 만들어 大自然 속에서 살아 남았던 것이다.

돌(石)은 山의 뼈(骨)요 土(땅, 또는 地神)의 精(物之眞氣)이기에 宇宙의 모든 形成物의 根本인 氣(生之元精)의 씨(核)이며 가장 剛하고 변하지 않는 精物인 것이다.

7. 米內山肅夫—蒙古草原.

8. 權記—永嘉誌.

9. 東皇—봄을 맡은 神, 靑帝.

그리기에 神의 所産인 돌로서 서낭당의 돌무더기(石碇長生)를 만들고 天地神에 祭祀하는 鄂博(어베크)를 만들고 마을의 守護와 三災를 막아주는 造山을 築造하였던 것이다.

虎食塚의 돌무덤도 서낭당(城隍堂)의 累石壇(돌무더기, 石碇長生)과 造山(長生標塔)과 鄂博(어베크)와 形態상으로 같게 본다. 機能面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禁域 또는 聖域을 標示하는데 돌로서 構造物을 만드는데 一致한다.

5) 虎食塚의 돌무덤(범다물)

虎食塚의 돌무덤은 그 모양이 造山이나 城隍堂의 돌무더기와 蒙古地方의 鄂博과 비슷하다. 機能面에서는 차이가 있으나 禁域 혹은 聖域으로서의 役割은 같다고 보겠다.

虎食塚을 함부로 건드리면 큰 탈이 난다고 한다. 어떤 사람이 그 옆에서 낮잠을 자다가 가위에 눌려 혼이 난 사실이 있는가 하면 그곳을 호기심에 건드려서 탈이 난 큰 곳을 하고 귀신을 단지에 가두어 그곳에 갖다 놓고 돌무덤을 원래대로 해놓고야 무사하였다는 일이 있다. 尊堂造山을 건드리자 대낮에 캄캄해지며 비 바람이 일어났다는 것과 虎食塚을 건드리고 탈이 난 것은 禁域으로서 서로 通한다고 보겠다.

虎食塚의 돌무덤은 무서운 禁域 혹은 神聖한 곳을 뜻하는데 범에게 물려간 사람은 선택된 사람이며 범이 虎似한 그 곳 자체가 神聖한 곳이라는 思想이 돌무덤을 만들게 한 것이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山間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山속에서 虎食塚을 발견하면 얼른 그곳을 피해버리고 그 근처에는 함부로 가지 않으며 함부로 건드리지 않는다.

虎食된 사람의 遺軀를 火葬하고 그 자리에 돌무덤을 만드는 것은 창귀가 그 속에서 곱적하지 말라는 뜻도 있다. 어떤 경우는 虎食塚이 巫俗人들의 祈禱處가 되는 것도 있다. 어쨌거나 그 禁域(虎食塚)을 건들면 큰 재앙을 받게 된다고 믿고 있다.

돌무덤을 설무덤, 설담, 다물개이, 돌다물, 범다물, 설무덕, 돌무덕 등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山의 뼈이며 土의 精이며 氣의 核인 돌을 모아 무덤을 만드는 것은 神聖한 場所를 뜻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겠다.



〈사진 10〉 업둔어미 화장터

시루와 가락은 없어지고 돌무덤만 남아 이쪽에 덮혀있다(동점동).



〈사진 11〉 虎食塚

범이 사람을 잡아먹고 머리만 남겨둔 곳에 유구를 발견한 유족이 화장을 하고 돌무덤을 만들었다. 그 위에 시루를 얹어놓았다.



〈사진 12〉 성황당 돌무더기
오고가는 길손들이 하나씩 주워 모아 쌓은 石積長生, 일명 국수맹이, 쿠시(太白山)



〈사진 13〉 造山
마을의 안녕과 三災를 막아주는 造山堂 성황당과 거의 같은 성격을 띤다(창죽동).



〈사진 14〉 天祭壇
돌로 쌓은 제단 하늘 神께 제사드리는 곳이다. 돌은 신성한 물건으로 성스런 곳에 사용된다(太白山天祭壇).



〈사진 15〉 寺塔
절 입구에 쌓아 聖域임을 알리고 근방에 경계를 세우기도 한다(下長面 樹發寺塔).



〈사진 16〉 虎食塚

오랜세월에 시루는 깨어지고 돌무덤엔 이끼가 무성하다(창죽동).



〈사진 17〉 虎食塚

시루도 가락도 없이 돌무덤만 남았다(정선군 여량리).



〈사진 18〉 虎食塚

시루와 가락은 없어지고 돌무덤에 이끼만 끼어 있다(삼척 신리).



〈사진 19〉 火葬터

문둥병에 걸려 죽은 사람을 火葬하고 그 자리에다 돌무덤을 쌓았다. 虎食塚과 흡사하여 구분이 안된다(삼척 신리).



〈사진 20〉 虎食塚

역시 시루와 가락은 보이지 않고 돌무덤만 남았다(경선 북동리).



〈사진 21〉 虎食塚

돌무덤 사이로 나무가 무성히 자랐다(봉화 석포리).



〈사진 22〉 郭博

몽고 草原에 있는 돌무더기로 몽고인들의 信仰의 대상이 된다. 위에 깃발이 많이 꽂혀있다(米內山雨夫著 蒙古草原에서 전제).



〈사진 23〉 郭博

매년 봄에 보수하고 오보祭를 지낸다. 우리의 성황당이나 造山과 비슷하게 생겼다.

5. 시루(甗)

시루(甗)라 하는 것은 떡이나 음식을 찌는 그릇으로 그릇 밑에 구멍이 나있어 그리로 蒸氣가 올라와 떡이나 음식을 익히게 하는 것이다.

시루를 甗 또는 甗, 甗으로 쓰기도 하는데 虎食 당하여 火葬한 돌무덤 위에 이 시루를 얹어 놓고 그 구멍에 가락을 꽂는다. 무엇 때문에 시루를 얹으며 시루는 대체 어떤 물건이기에 그 무서운 장귀를 꼼짝 못하게 하는지 알아 본다.

1) 시루나 甗器類를 얹어 놓는다.

虎食塚에 가보면 대개가 돌무덤 위에 시루를 얹어 놓은 것을 볼 수 있다. 어떤 곳에는 시루대신 용가지(용기 그릇, 물동이, 버지기 등)를 얹어 놓은 곳도 있고 때로는 함지(나무로 만든 큰 그릇)를 얹어 놓은 곳도 있다.

山間 마을 특히 火田 마을에는 절그릇이 귀했다. 그래서 나무로 모든 것을 만들어 사용했다. 김치독을 나무로 만들고 밥그릇과 설겅이 그릇도 나무로 만들고 기와(너와)도 나무로 만들며 그밖의 各種 生活用品을 나무로 만들었다. 깨어지기 쉬운 용기, 자기류는 移動性인 火田民에게는 不便한 것이었고 또한 깊은 山中이어서 구하기 힘든 면도 있었다. 시루나 용기(물동이, 버지기)를 사자면 몇 백리를 나가야 살 수 있으니 용가지(물동이) 보다 사용 빈도가 적은 시루는 더욱 귀했다. 그래서 물길어 먹는 용기동이(물동이)에 금이 가거나 깨어져 물이 새면 그 밑에 구멍을 뚫어 시루로 사용하는 例가 많았다. 火田民과 山中에 사는 사람들은 떡이나 찌 먹음 정도로 부유하지도 못했고 어쩌다 名節이나 告祀때 시루를 사용했다. 그래서 虎食되었을 때 시루가 없으면 그와 유사한 물동이나 함지 등 아무것이나 얹어 놓기도 한다(사진 32).

2) 시루와 솥

시루는 시루 自體로는 飲食을 익힐 수 없다. 솥에 물을 붓고 그 위에 시루를 올려 놓아 물을 데게 되면 솥 속의 물이 끓어 蒸氣가 생기게 되고 그 뜨거운 蒸氣가 시루 구멍으로 올라가 시루속의 음식이 찌지는 것이다. 그래서 시루는 꼭 솥위에 올라가게 된다. 시루가 어떤 것인지 알기 위해 시루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솥에 대해 알아 보기로 한다. 솥은 음식을 삶아 익혀 먹는 그릇으로 부엌에서는 가장 중요한 집기이다.

易經의 鼎卦를 보면

「단에 이르기를 鼎은 형상이다. 나무를 불에 넣어서 음식을 삶는다. 聖人(聖王)은 솥에 음

식을 삶아 上帝(하느님)께 祭祀하고 또한 많이 삶아서 어진이(聖賢)를 기른다.」(象曰鼎象也以木巽火亨莊也聖人亨以享上帝而大亨以養聖賢)

라고 했다.

솥은 사람이 火食을 하는 가장 상징적인 물건이다. 그것은 神에게 祭祀할 때도 사용되지만 어진 사람을 먹여 기르는 소중한 그릇인 것이다.

옛 사람들은 世上을 큰 그릇으로 생각했던가 보다. 老子의 道德經에 보면

「天下는 신비로운 그릇이라 사람의 생각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다.」(天下神器不可爲也)

라고 했다.

老子는 世上을 큰 그릇에 비유했던 것이다. 아마도 땅위의 모든 만물을 담고 있는 큰 그릇이 땅이라는 생각인가 보다.

九鼎이란 것이 있다. 夏의 禹王이 九洲에서 솥을 거둬들여 아홉개의 큰 솥을 만들었다. 九洲를 상징하는 커다란 솥으로 犧牲物(祭物)을 삶아 天地神에게 祭祀하는 祭器로서 神聖한 그릇이다(漢書. 諸九鼎象九洲皆當屬亨上帝鬼神). 그래서 夏, 殷 이래로 周代까지 帝王의 보물로 保全되어 왔고 솥이란 天下를 象徵하는 그릇이 된 것이다.

天下가 어지러움을 鼎沸라 한다. 솥의 물이 끓는 것과 같다하여 世上을 솥에 비유했고, 鼎運은 임금의 運命 또는 國運이란 뜻인데 나라를 솥에 비유했다. 옛 것을 改革함을 鼎新이라 하여 天下와 國家를 상징하는 솥을 새롭게 鑄造하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周代의 도철무늬가 새겨진 饗養鼎 饗養鼎 등도 帝王의 권위와 國力을 상징하는 祭器인 것이다.

百姓을 蒸民이라 한다. 솥은 天下를 뜻하고 나라를 象徵하는 그릇인데 蒸民(백성)은 커다란 솥같은 世上에서 익혀진(길러진) 사람이란 뜻이다(詩經. 天生蒸民有物有則 立我蒸民莫匪爾極).

烹刑이란 것이 있다. 죄인을 큰 솥에 넣어 삶아 죽이는 형벌이다. 史記에 보면 梁王도 烹刑으로 죽었다. 솥은 刑具로도 사용한 무서운 그릇이다. 솥은 世上이며 땅을 의미하지만 시루는 그 위에 올라가는 하늘인 셈이다. 솥은 구멍이 없어 땅을 의미하지만 시루는 구멍(窓, 孔)이 있어 하늘(天空)을 의미한다.

10. 饗養(도철) - 中國古代器物 특히 周代의 銅器에 조각된 두개의 눈은 主體로 한 기이한 무늬.

犧牲物(네발 짐승)은 솥에 삶지만 열매(곡식 포함)는 시루(甑)에 쪄다. 짐승은 네 발을 땅에 딛고 땅에 의지해 자라니 땅을 뜻하고 열매는 공중에서 하늘기운으로 자라 하늘을 뜻한다. 그래서 시루는 솥보다 더 높은 次元의 그릇이다. 祭祀할때 시루 떡이 시루째로 바쳐지는 것은 시루자체가 신성한 그릇이기 때문이며 그 그릇 속에서 익혀진 떡은 신성한 음식인 것이다.

3) 시루의 구멍은 九天(하늘)이다

시루의 구멍(竅)은 하늘과 通한다. 시루는 대개 질 그릇으로 되어 있으나 폐로는 무쇠로 된 것도 있다. 시루는 음식을 찌기 위해 밑에 구멍이 뚫려 있다. 작은 것은 5개, 좀 큰 것은 7개, 좀더 크면 9개, 아주 큰 것은 12개의 구멍이 뚫려 있다(폐로는 6개의 구멍이 뚫린 시루도 있다). 시루는 하늘을 뜻하고 그 구멍은 하늘을 象徵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淮南子에는 天有九野 中央及四正四隅 故曰九天이라 하여

「하늘에 九野가 있으니 中央과 四正(東西南北)과 四隅(東南, 東北, 西南, 西北)인데 이를 九天(하늘)이라 한다」

라고 했다.

星湖僊說에도 自古言天有九重者라 하여

「예로부터 말하길 하늘은 아홉겹이다」

라고 했고 屈原의 楚辭에도 東溟天 東南陽天 南赤天 西南朱天 西成天 西北幽天 北玄天 東北變天 中央鈞天 是爲九天이라 하여 하늘을 아홉 方位로 나누어 불렀다. 그래서 하늘을 九天이라 부르는 것이다.

하늘을 五天으로 부르기도 하고 七天으로 부르기도 한다. 東西南北과 中央(하늘 한 가운데)을 합쳐 五方天 혹은 五天이라 하는데 東蒼天 南昊天 西旻天 北上天 中央皇天이 그것이다. 七天은 五天에 日天과 月天을 더하여 부르기도 하고 北斗七星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밖에 九重天, 九重, 九天, 九乾, 九霄, 九玄, 九陽, 九野, 九星, 九垓, 九陲, 九關, 九方天, 大空, 蒼空, 九空, 天空, 蒼穹 등으로 부른다.

옛 사람들은 하늘이 둥근 半球形으로 생겼다고 믿었고 홍사 鍾이나 시루를 얹어 놓은 것과 같다고 생각했다. 둥그런 시루를 얹어 놓았을때 그 形狀이 하늘 모양과 같고 뚫린 구멍은 九天, 七天, 五天을 의미하고 그 배치 또한 같다고 보았다.

虎食塚에는 대개 9구멍 짜리 시루를 많이 얹어 놓는데 시루의 九孔(九竅)은 九空이요 九穿이며 九穿은 九泉과도 通하고 九天과도 通한다.

하늘(天上)에는 〓九天이요 땅(地下)에는 〓九泉이며 人體에는 〓九竅(九穴)이요 시루에는 九穿(九穿, 九空, 九孔)인 것이다.

하늘은 큰 구멍이다. 그래서 하늘을 大空, 蒼空, 九空으로 불렀으니 시루의 아홉 구멍(九竅 九孔)도 九天을 상징하는 뜻이 있다. 물론 다섯구멍의 시루는 五天이요 일곱 구멍의 시루는 七天에 비유되는 것이다.

4) 呪術에 사용된 시루

물건을 잃어 버렸을 때 도둑을 잡는 방법으로 시루를 使用하는 民間에 傳해지는 特異한 呪術이 있다.

[例 1]

물건을 잃어버린 집에서 도둑을 가려내고자 할때 솥위에 시루를 얹고 시루속에 〓「결판바」(結棺索)를 깔고 그 위에 고양이를 넣고 무쇠 솥뚜껑(가마솥 뚜껑)으로 덮어 놓아 고양이가 못나오게 한다. 그런 다음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부뚜막에 淨水를 떠다 놓고 비는데 “최는 지은대로 가게 하소서”하며 육갑(六十甲子)을 읽는다. 六十甲子를 외우는 뜻은 모든 사람이 六十甲子(甲子, 乙丑, 丙寅, 丁卯 등)에 속해 있으며 이름 모를 도둑도 그 六十甲子속에 들어 있기 때문이다. 이때 솥에서 물이 뜨거워지며 뜨거운 蒸氣가 시루로 올라오게 되고 고양이가 몸부림을 친다. 물건을 잃은 사람은 계속 六十甲子를 외우고 고양이는 뜨거워 비명을 지르며 몸을 뒤뜰게 된다. 이때 도둑도 고양이와 같이 몸이 뒤뜰리며 미치게 된다.

[例 2]

물건을 잃어 버렸을때 所行이 재빨리 도둑을 呪呪하기 위해 시루(甑)와 뚜구리(뚝저구, 뚝쟁이, 뚝중개)라는 민물고기를 사용한다. 먼저 물건을 잃어 버린 사람이

11. 九天-하늘을 아홉방위로 나누어 부르는 말. 전하여 하늘.

12. 九泉-黃泉을 뜻함. 지옥.

13. 九竅-사람의 몸에 있는 아홉개의 구멍. 즉 눈, 코, 귀, 입, 항문, 요도의 아홉구멍.

14. 結棺索(결판바, 절판바)-棺을 묶는 굵은 밧줄.

부엌 부뚜막에 시루를 가져다 놓고 그속에 淨水를 떠 놓고 “龍王經을 읽는다. 그리고 잡아온 두구리를 오른손에 잡고 왼손에는 바늘을 들고 “죄는 지은대로 가게 하소서 조왕님의 신통력으로 죄인(도둑)의 눈을 까지게 하소서”한다. 또는 “죄는 지은대로 가게 하시고 조왕님의 신통으로 죄인에게 표식을 하여 주소서”하며 두구리(독중개)의 눈을 바늘로 찌른다. 그러면 도둑의 눈이 멀어 버린다는 것이다. 보통은 부뚜막 안쪽의 중방에 두구리의 눈을 찔러 꽂아 놓는다.

[例 3]

결관바(結棺索)로 고양이를 꼼짝 못하게 묶은 다음 시루 속에 넣고 불을 켜면. 뜨거운 蒸氣가 올라오며 고양이가 몸부림 치고 몸이 뒤틀려 지는데 이때 도둑도 고양이를 같이 몸이 뒤틀려 진다고 한다. 물론 시루는 솥 위에 올려 놓는다.

[例 4]

결관바(一名 결관바)로 고양이를 묶어 시루에 찌르면 그고양이 영혼이 도둑의 목을 물어 죽게 한다고 한다. 그러니까 시루속에서 몸부림과 비명을 지르다가 죽은 고양이의 영혼이 도둑을 찾아가서 도둑의 목을 물면 도둑의 목에 고양이의 이빨 자국과 같은 검은 멍이 들며 발광을 하다가 죽는다는 것이다(虎患事例 19와 같이 된다는 것).

[例 5]

물건을 잃어버린 사람이 마을의 모든 사람을 불러 모은다(의심이 가는 사람도 부른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솥을 걸어 시루를 얹어 놓고 시루속에 결관바를 깔고 고양이를 넣은 다음 무쇠 솥뚜껑을 덮는다. 그리고 불을 켜면. 시루속의 고양이가 비명과 몸부림을 치게된다. 역시 죄는 지은대로 가라는 呪呪文을 계속 외우며 한참 고양이가 비명과 몸부림을 칠때 솥뚜껑을 열어 버린다. 그러면 뒤어 나온 고양이가 모여선 사람들 가운데의 도둑을 찾아 목을 물어 버린다고 한다.

5) 鬼神을 制壓하는 시루

시루는 鬼神을 制壓하는 힘이 있다고 믿었다. 그래서 民間에서는 各種疾病과 憂患이 있을때 시루를 사용했다.

[例 1]

鬼神이 덮쳐 몸이 아플때 귀신을 治方(制壓)하는 마령(麻靈?)이라는 儀式이 있다. 쌀을 患者의 몸에 뿌린 다음 그것을 다시 솥에 모아 그곳에 담아 空한 方位¹⁶⁾(손 없는 방위)로 가져다 놓고 그 위에 시루를 얹어 놓고 시루 구멍에 가락을 꽂아 놓으면 鬼神이 降伏을 하게 된다. 그러면 鬼神이 맥을 못추게 되며 患者는 덜 아프게 되고 이때 들어 내면 病이 낫는다.

[例 2]

온 마을에 아이들이 紅疫을 앓게 되면 앓다가 제일 먼저 죽은 아이를 묻고 그 위에 시루를 얹어 놓는다. 그 아이에게 덮친 紅疫鬼神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여 다른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은 그 아이의 영혼과 홍역 귀신이 돌아다니며 마을 아이들을 모두 잡아 간다고 믿는다. 그래서 죽은 그 아이의 무덤(애총 兒塚) 위에 시루를 얹어 놓는 것을 방에(防厄, 防豫)라 한다

6) 시루를 얹어 놓는 뜻

왜 虎食塚에 시루를 얹어 놓을까?

지금까지 살펴 본 결과 솥은 땅을 뜻하고 시루는 그 솥위에 올라 앉은 하늘을象徵하는 그릇이다. 그것을 얹어 놓으면 둥근 半球形의 하늘처럼 생겼고 뚫린 구멍은 하늘을象徵하는 것이다. 또한 산 것(生것)을 찌는 것이 시루인데 그것은 죽음을 뜻한다. 솥도 삶는 것으로 무서운 것이다(烹刑을 가하는 것과 같이). 그래서 솥이나 시루가 뜻하는 것은 邪惡함과 不潔함, 살아있는것 등을 모두 찌고 삶아 죽이는 것이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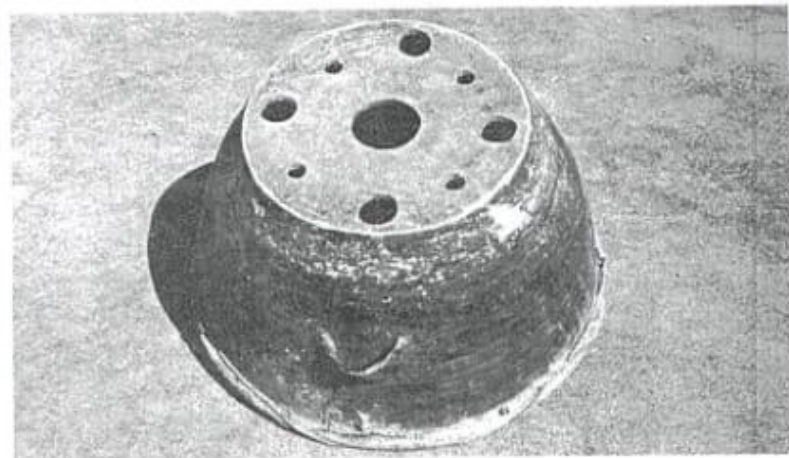
15. 龍王經(조왕경)—부엌神을 조왕이라 하고 조왕경은 부엌神(龍王)을 찬양하는 경문.

16. 손 없는 方位—음력 1, 2일은 동쪽 3, 4일은 남쪽 5, 6일은 서쪽 7, 8일은 북쪽에 손(殺)이 있다고 한다. 9, 10일은 무방수날이라 하여 손이 없는 날이다. 1, 2일은 동쪽에 손이 있고 나머지 방위는 손없는 방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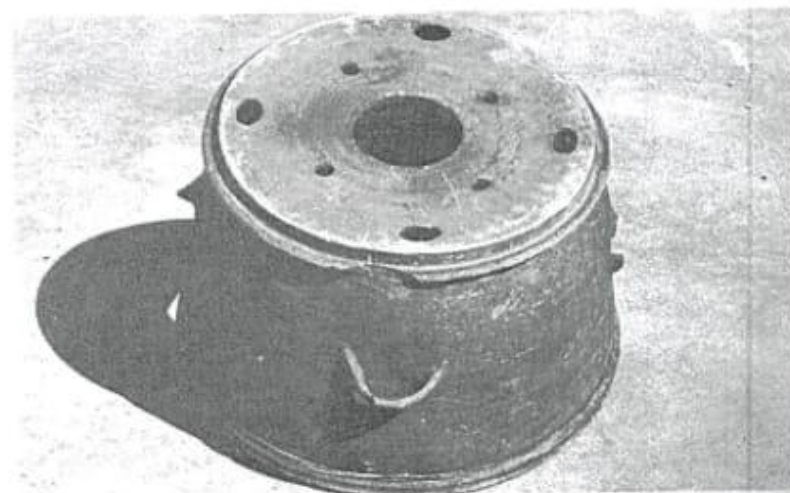
74 虎食葬

그것을 얹어 놓으면 귀신(창귀)도 그 속에서는 꼼짝하지 못하게 된다. 그것을 얹어 놓으면 四方이 斐城이어서 鐵壁과 같고 위쪽으로 9개의 구멍이 뚫여 하늘을 形象하니 날아서나 빠져나갈 수 있는 死地와 같은 곳이 되어버린 것이다. 거기에다 雪上加霜으로 하늘(시루 구멍)에서 쇠꼬챙이(武器, 비락)까지 내리 꽂혀 있으니 그 속에 있는 귀신은 搖之不動인 것이다. 그래서 무서운 악귀(紅疫鬼, 창귀, 말명鬼)에게 시루를 덮어 씌워 制壓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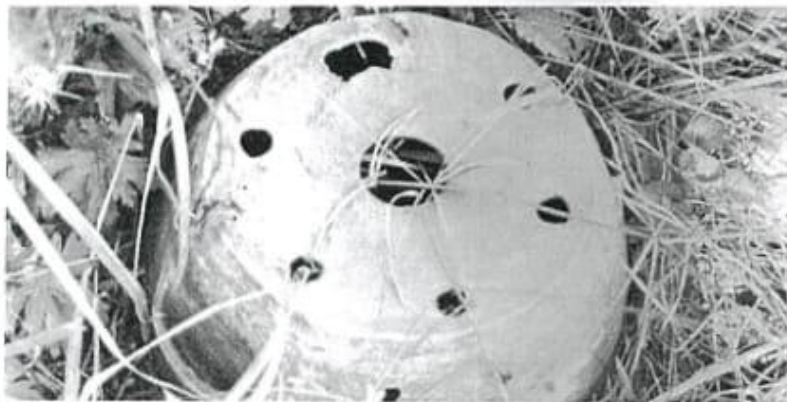
시루 (瓶) 75



〈사진 24〉 시루 1
음식을 찌 먹는 시루 구멍이 9개이다



〈사진 25〉 시루 2
시루바닥에 굽도리까지 있는 대형시루, 가운데 구멍이 유난히 큰 것이다.



〈사진 26〉 시루 3

귀신을 제압하기 위해 얹어놓은 시루. 시루 구멍사이로 잡초가 나 있다(울진 덕구리).



〈사진 27〉 虎食塚 시루

가락은 간곳 없지만 대체로 완전한 상태로 남아있는 시루로 돌 무덤위에 있다.



〈사진 28〉 虎食터 시루

虎食되어간 곳에 화장을 하고 몇개의 돌을 쌓고 시루를 얹어 놓았다. 시루밧이 다 떨어져 나가고 나무줄기가 솟아났다.(경선 북동리).



〈사진 29〉 虎食터 시루

바위 밑에서 사람을 잡아 먹은 곳 몇개의 돌과 깨어진 시루가 흩어져있다(태백시 철암동).



〈사진 30〉 虎食터 시루
큰 소나무 등걸 뒤쪽으로 깨어진 시루가 보인다(삼척군 수동리).



〈사진 31〉 虎食塚 시루
돌무덤 위쪽에 관란한 돌을 놓고 그 위에 시루를 얹었다. 깨어진 시루와 녹슨 가락이 보인다(태백시 철암동).



〈사진 32〉 虎食터의 용기류
창귀를 가드던 단지와 깨어진 시루, 용가지가 보이고 나무로 된 함지도 없어 놓았는데 썩어 겨우 형체만 남아있다(경선군 북동리).



〈사진 33〉 虎食터의 시루파편
바위 밑에서 밤이 사람을 잡아 먹었다. 화장을 하고 돌무덤을 만들고 시루를 얹었다. 지금은 뽕뽕을 설치했고 그 옆엔 시루 파편이 보인다(연화동).



〈사진 34〉 虎食塚 시루

암벽 밑에서 빗이 사람을 잡아 먹었다. 완벽한 시루와 가락도 보인다(정선군 덕암리).



〈사진 35〉 虎食터 시루

우거진 수풀속에 깨어진 시루가 보인다(삼척군 추동리).

6. 가 락

가락은 “가락꼬치”라고도 하는데 길쌈을 하기 위해 물레를 자아 실뿔(실꾸리)을 만드는데(감는데) 사용하는 길다랗고 둥근 쇠꼬챙이 이다(사진 36).

虎食塚에서 火葬을 하고 돌무덤을 만들고 시루를 얹어 놓고 그 시루의 가운데 구멍에 가락을 꽂는다. 대개 가락을 꽂는 것이 常例이지만 때로는 칼을 꽂는 수도 있다. 여기에서는 虎食塚에 가락이나 칼을 꽂는 이유에 대해 살펴 본다.

1) 人間の 創造物 쇠

돌(石)은 神이 만든 自然物로서 가장 단단하고 剛하며 변하지 않는 精物이며 神物로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위대한 것이다. 그에 반해 사람이 自然속에서 얻어 낸 가장 剛하고 무섭고 反自然的인 創造物이 쇠(鐵)인 것이다. 그것은 神을 거역하는 물건이며 어찌면 神과 같은 물건이며 가장 위대한 것이다. 그러기에 돌(石)은 神의 創造物이요 쇠(鐵)는 人間の 創造物인 것이다.

쇠(鐵)는 살아있는 모든 것의 敵이요 살아있는 모든 것을 制壓할 수 있으며 살아있는 모든 것을 죽일 수 있는 절대적인 물건인 것이다. 그래서 人間은 이 물건을 이용하여 反自然的인 行爲을 하였고 그로 인해 人間은 自然(神)에 反旗를 든 것이다. 쇠꼬챙이, 쇠톱, 쇠칼, 쇠망치, 쇠도끼, 창칼, 총, 대포, 기차, 비행기 등등 쇠(鐵)로 말이다.

여기에서 쇠꼬챙이(가락, 칼)는 모든 살아 있는것(動植物)을 죽일 수 있는 힘이 있고 모든 죽어 있는것(귀신, 자연물)에 까지 막강한 힘을 작용하여 그것들에게 절대적인(죽음까지) 힘을 행사하여 그것들의 氣를 꺾고 시들게 만드는 것이다.

2) 破穴과 쇠꼬챙이

壬辰亂때 倭(中國人)와 왜(日本人)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秀麗한 錦繡江山 곳곳에 소위 穴(血)이란 것을 지르고 끊고 하였다. 그래서 全國의 名山大川 勝地에 그들이 穴을 절렀다는 傳說이 많으며 山脉과 岩石을 끊거나 깨어 버린 곳과 쇠말뚝을 박았다는 곳이 헤아릴 수 없도록 많다.

우리 祖上들은 山脉을 살아있는 生命體로 보았고 특히 사람의 몸에 비유를 많이 했다. 그래서 倭와 왜가 名山에 쇠말뚝을 박아 穴을 지른것은 사람의 팔 다리와 몸 에 쇠말뚝을 박은 것과 같다고 믿었다. 그리하면 山川도 사람과 같아 精氣가 막히거나 끊어져 죽은 山川이 되며 그로 인하여 그 山川의 精氣를 받고 살아가는 朝鮮人이 勇猛이 없고 무기력해지며 훌륭한 人物이 나지않는다고 믿었다. 그래서 우리 祖上들은 몸에 쇠(鐵)를 대는 것을 禁惡하였다. 처음 西洋醫術이 이땅에 들어왔을때 手

術하기를 꺼려했던 祖上들의 마음속에는 쇠(鐵)를 몸에 대기 싫어하는 思想이 깊이 박혀 있었기 때문이었다.

몸에 쇠를 대는 것은 山脉에 쇠말뚝으로 穴을 지르는 것과 같아 쇠꼬챙이(칼)로 手術받은 몸의 血脉을 질러 꼼짝 못하게 하여 氣力을 쓰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 생각하였다.

3) 벼락과 쇠꼬챙이

옛날 사람들은 벼락을 칠때에 하늘에서 무쇠꼬챙이가 내려와 친다고 믿었다. 실제로 벼락 맞은 나무를 보면 껍질이 흠뻑 벗겨져 있고 벗겨진 나무표면에 가는다란 홈이 곧게 혹은 나선형으로 나무의 뿌리부분으로 파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홈을 따라 내려가 나무 뿌리 부분의 땅속을 파면 무쇠꼬챙이 같은 것이 나온다. 그것은 벼락 칠때 그 무쇠 꼬챙이가 하늘에서 내려와 나무나 바위를 친다고 믿었다. 죄진 사람이나 사악한 귀신이 있으면 그 무쇠꼬챙이가 내려와 벼락을 친다는 것이며 그 무쇠 꼬챙이를 삶아 초학(학질) 얹는데 그 물을 마시게 하면 병이 낫는다고 한다.

여기에서 쇠꼬챙이(가락, 칼)와 벼락칠때 내려온다는 무쇠꼬챙이는 形態상으로 비슷하고 귀신을 제압하는 機能이 비슷하다고 보겠다.

4) 가락은 도는 것

가락은 물레의 피물기둥 사이에 가로로 길게 꽂아서 실꾸리(실뭇)를 감기위해 물레줄에 의하여 뱅글뱅글 돌아가는 길다랗고 둥근 쇠꼬챙이이다.

虎食葬을 調査하기 위해 60~80세 되는 100여명의 老人들을 만나서 이야기 하여 보았다. 시루구멍에 가락을 꽂는 의미에 대해 질문을 하여보니 약 70%에 달하는 老人들이 비슷한 대답을 하였다. 그것은 창귀가 시루속에서 가락처럼 제자리에서 뱅글뱅글하고 빠져 나오지 말라는 뜻이라는 것이다. 참 재미있는 비유이며 우리 조상들의 思考가 슬기로움을 알것 같다.

5) 가락의 의미

앞에서 예를 든 것과 같이 虎食塚에 시루를 얹고 가락이나 칼을 꽂는 것은 그 속에 들어있는 창귀가 꼼작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名산에 쇠말뚝을 박아 穴을 질러 山川의 精氣를 끊듯, 무당이 굿을 할때 창과 칼을 휘두르며 귀신을 겁주며 武力으로 制壓하듯, 쇠(가락, 칼, 창, 쇠말뚝)는 모든 살아있는것(動植物)과 죽어 있는것(귀신, 自然物)에 까지 죽이고 制壓할 수 있는 절대적인 물건이다. 그러기에 쇠꼬챙이(가락)는 殺氣를 품은 武器(칼, 창)와 같아 山川이든 人間이든 鬼神이든 制壓하는 힘이 있다고 믿기에 시루 구멍에 가락이나 칼을

꽂는 것이다. 그리하면 시루속에 있는 창귀의 明氣가 빠져 無氣力해지고 아무런 勇猛이 없어 힘을 못쓰게 되는 것이다.

또한 가락은 그 돌아가는 특성 때문에 시루에 가락을 꽂을 경우 시루속에 있는 창귀가 가락이 제자리에서 뱅 돌듯 그 속에서 돌기만 하고 나오지 말라는 비유적인 뜻의 迂迴的 間接的 制壓의 뜻이 있는 반면, 武力(가락, 칼)으로 威壓的인 威脅을 가해 창귀를 직접 제압하는 방법도 쓴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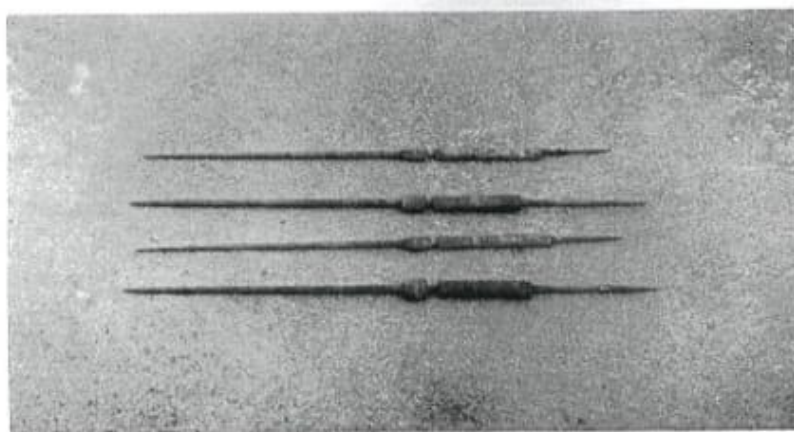
(사진 36) 물레질

아래쪽 피물기둥에 가로놓인 가락이 제자리에서 뱅글뱅글 돌며 실꾸리를 감아낸다.



〈사진 30〉 시루와 가락

시루의 가운데 구멍에 긴 가락을 꽂아두었다. 창귀가 시루속에서 뱅글뱅글 돌며 나오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사진 30〉 가락

물레로 실을 자을때 사용되는 가락. 굵기 1cm정도 되는 긴 쇠고랭이다. 흡사 창처럼 뾰족한 무기와 같다.

7. 結 論

범은 사람을 잡아 먹고 나서 머리를 남겨두며 때로는 머리 외에 身體의 일부를 남기기도 한다. 그것을 遺族이 발견하여 발견한 장소에서 火葬을 하고 재만 남은 위에 돌무덤을 만들고 그 위에 시루를 얹어 놓고 그 시루 구멍에 가락을 꽂아 놓는 특이한 형태의 무덤이 虎食塚이다.

무엇 때문에 이런 特異한 形態의 무덤을 만드는지 이에 대해 알아 보았다. 그것을 간추리면

- 1) 火 葬 : 도든 사악함을 태워 完全 消滅 시키고자 하는 뜻이 있고
- 2) 돌무덤 : 성황당의 돌무덤이나 造山처럼 神聖한 地域을 뜻하고, 鬼神(창귀)을 꼼짝 못하게 가두어 놓는 禁域을 뜻하며
- 3) 시 루 : 하늘을 뜻하고, 산 것을 죽이는 무서운 그릇이며, 鐵甕城 같이 창귀를 가두는 뜻이 있고
- 4) 가 락 : 武器를 뜻하고, 벼락을 뜻하며, 가락의 용도처럼 뎀 돌기 만하고 빠져 나오지 말라는 뜻이 있다.

위의 네가지 要因이 複合的으로 作用하여 무서운 창귀를 制壓하는 것이다. 창귀는 물귀신과 같이 다리를 놓는다. 다리(혹은 사다리)를 놓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하나 짊어 넣고 잡아 먹히게 하고) 자기는 그곳을 빠져나와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을 말한다. 그러기 위해서 창귀는 또 다른 창귀를 만들어야 하고 必然的으로 어느 누가 범에게 잡혀 먹히야 된다는 것이다.

범에게 영원한 종(노예)으로 묶여 있는 창귀는 그 地獄 같은 곳을 빠져 나오려 하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범에게 잡혀 먹히지 않으려고 애쓰는데 번번히 사람은 범에게 잡아먹히 창귀의 다리놓기에 걸려들게 되는 것이다. 그러한 다리놓기의 惡循環을 막고자 火葬을 하고 돌무덤을 만들고 시루를 얹으며 그 위에 가락을 꽂는 것이다.

火葬을 하는 것은 모든 邪惡함을 태워 完全 消滅시키고자 하는 뜻이 담겨 있고 그 위에 돌무덤을 만드는 것은 창귀를 꼼짝 못하게 가두어 놓는 禁域을 뜻하기도 하며 虎食되어 간 神聖한 地域임을 의미하기도 한다. 돌무덤 위에 시루를 얹어 놓는 것은 하늘을 뜻하는 것이며 鐵甕城 같이 창귀를 가두는 의미와 살아 있는 것을 찢어 죽이는 무서운 그릇의 의미가 있고 그 시루 위에 가락을 꽂아 두는 것은 武器와 벼락을 뜻하기도 하며 가락의 용도처럼 제자리에서 뎀 돌기만 하고 빠져 나오지 못하게 하는 防厄의 뜻이 있다고 보겠다.

창귀가 얼마나 무서웠으면 범 물어간 집안과는 사돈을 맺지 않았을까?

창귀는 악독한 귀신이어서 사돈의 팔촌까지 찾아다니며 해코지를 한다고 한다.

그렇게 고약한 귀신이기에 二重三重的 防壁으로 그 귀신에 依한 患難을 막고자한 先人들의 悽絶한 生活의 斷面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虎食塚인 것이다.

武器가 없는 人間에게 범은 神과 같은 存在인 것이다. 그러기에 虎食을 宿命으로 받아들였고 팔자소관으로 생각하면서도 또 다시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보고자 하는 소박하면서도 애절한 생각이 虎食葬禮의 特異한 儀式이 생겨나게 했고 虎食塚이란 奇異한 形態의 무덤을 만든 것이다.

Ⅲ. 風水地理說이 虎患에 미치는 影響

風水地理說의
基本概念

범의 習性

虎患터의 類形

虎食터가 明堂이다.

Ⅲ. 風水地理說이 虎患에 미치는 影響

우리나라의 傳統 집터는 背山臨水가 基本的인 構造를 이루고 있다. 坪野地帶를 除外한 山岳地帶에서는 거의가 山 밑에 집을 짓고 산다.

虎食葬을 調査하는 過程에서 虎患을 당한 대다수의 집터가 傳統的 背山臨水の 山 밑 집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혹시 風水學에서 말하는 明堂터가 虎患과 直間接的인 연관이 있지 않을까 하여 研究하여 보았다.

1. 風水地理說의 基本概念

風水란 말은 藏風得水의 준말이다. 사방이 山으로 둘러싸여 바람을 막아주며 앞쪽에 물이 있어야 한다는 明堂의 기본 조건을 함축성 있게 줄인 말이다.

山을 龍이라 하는데 山脉이 구불구불하고 길게 뻗은 것이 龍과 같다고 하여 그리 부른다. 그 龍(山)이 끝나는 곳을 穴場이라 하고 墓나 집을 지은 앞을 明堂이라 한다. 그 明堂을 감싸고 있는 왼쪽의 山을 左靑龍이라 하고 오른쪽을 감싼 山을 右白虎라 한다. 玄武는 明堂 뒷쪽 즉 집이나 墓가 있는 뒷쪽의 약간 높은 山을 말하며 朱雀은 明堂 앞에 別다른 山이 있어 앞쪽의 하전한 것을 막아 주는 山이다.

이렇게 멀리 祖山에서 뻗어내린 山脉의 끝에 집을 짓거나 墓를 쓰게 되는 明堂이 있는데 그 明堂을 四方에서 감싸 안은 것을 左靑龍 右白虎 前朱雀 後玄武라 한다. 이러한 곳에 집을 짓거나 墓를 쓰면 山의 精氣를 받아 後孫이 發福을 하여 富貴하게 된다는 것이다.

옛 사람들은 山脉을 살아있는 나무가 지나 어떠한 物形으로 보기도 하였다. 나무가지 끝에 꽃이 피듯 山 끝에 明堂이 있다고 하였다.

서울의 경우 멀리 威鏡南道 추가령에서 뻗은 來龍(山脉)이 北漢山까지 이어졌고 北岳山에서 入首하여 景福宮의 明堂을 이루었고 仁旺山이 右白虎요 창경원 쪽 山이 左靑龍이며 南山이 案山을 이루었고 그 밖으로 大江이 흐르며 그 江 너머의 冠岳山이 朝山인 것이다. 서울은 國內에서도 가장 큰 形態의 明堂이지만 대개 山岳지대에 서는 그 形局이 협소하고 단조로운 형태의 명당이 있을 뿐이다.

2. 범의習性

범은 다른 짐승과는 달리 山등으로 다니는 습성이 있다. 그것은 山등에서 골짜기 쪽을 바라보며 먹이를 찾기 위해서이다. 山등에 올라서야 可視圈이 넓어 멀리 볼 수 있고 달아나는 먹이를 쫓는데도 지름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山岳地帶가 많아 丘陵이 많으므로 이땅에 사는 범은 그 地形을 잘 이용한것 같다. 범이 사람을 잡아 먹은 곳은 대개가 山등성이이며 골짜기는 극히 드물다. 이것은 범이 먹이를 골짜기에서 잡아 자기가 좋아하는 山등성으로 물고와서 먹기 때문이다.

범은 골짜기를 싫어한다. 먹이를 쫓기 위해서나 물을 마시기 위해 골짜기로 내려가지만 오래 머물지 않고 山등성으로 올라 온다. 범은 전망이 좋은 앞이 터진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든다. 그리고 山稜線으로 다니길 좋아한다.

3. 虎患터의 類型

山間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風水學에 대해 전혀 모르는 경우라도 바람과 추위를 피할 수 있는 곳에 집을 짓게 되는데 보통 山 밑이며 左右로 山이 감싸서 風水學에서 말하는 기본 明堂의 要件을 갖추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德岩 샘배이글의 虎食터를 보면 먼 山에서 흘러온 山脉이 세가닥으로 갈라지며 가운데 것은 穴場으로 내려오고 양쪽 것은 집터를 감싸는 형상으로 風水學에서 말하는 明堂의 요건을 갖춘 곳이다. 집뒤의 山에서 집안을 노려보던 범이 사람을 물고 갔다.

菴山歌에 보면 寅方(東北方)에 범이 었드려 있는 形象의 바위가 집이나 墓터를 굽어보면 그 집안에 虎患이 있게 된다고 하였다(寅方有伏虎岩 有子孫之虎傷). 上東 신대골의 虎食터를 보면 寅方에 큰 바위가 집을 내려다 보고 있다. 그 바위에서 범이 집 쪽을 노려보다가 아이를 물어갔다.

文曲 편들의 虎食터는 形家에서 말하는 瑞鳥歸巢形의 明堂터 인데 집 옆의 左靑龍이 되는 山에서 집을 내려다 보던 범이 女兒를 물어간 것이다.

그밖에 虎食되어간 터를 보면 거의가 風水學에서 말하는 明堂터임을 알 수 있다.

4. 虎食터가 明堂이다

虎食터를 調査하여 그림으로 그려보니 風水學에서 말하는 基本 明堂의 要件과 거의 一致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래서 風水學의 基本 明堂이 虎患 당하기 적합한 곳이라는 결론에 접근 하기에 이르렀다.

범은 山등성으로 다니는 습성이 있고 사람은 그 산등성이가 끝나는 곳에 집짓고 살기를 좋아하니 범의 길목에 있는 人家는 습격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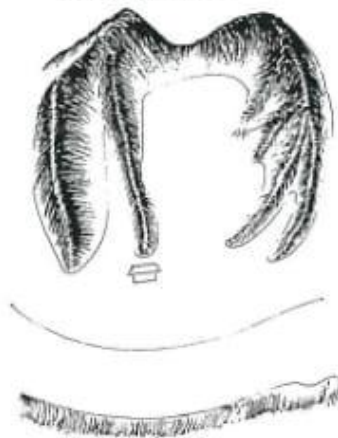
예를 든다면 (그림 9)에서 보듯 太祖山이나 中祖山에 서식하는 범이 산등성을 따라 내려오면 그곳(明堂)에는 집이 있으니 범이 마음만 먹으면 사람을 해칠 수 있는 입지조건을 갖춘 셈이다. 조선시대 서울에 많은 범이(특히 仁旺山·호랑이) 나타나 장안의 사람을 물어 간 예는 서울이 天下의 明堂이긴 하지만 반대로 虎患 당하기에 적합한 地形이기에 그러하다.

또한 예로는 집이 있는 쪽으로 山줄기가 뻗어 있어 그곳에 올라서서 보면 집이 뵈이 보이는 장소는 역시 그곳에서 범이 집쪽으로 노려볼 수 있는 장소가 된다. 그래서 이러한 곳에 虎患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특이한 것은 坪野地帶에서는 虎患이 거의 없는 것과 山中 마을에서도 넓은 밭가운데 있는 집에서는 虎患을 당하는 경우가 드물다. 이것은 범이 山등성을 타고 다니기를 좋아하기에 그러하다.

범이 사람을 잡아 먹은 터를 明堂이라는 말이 있다. 범이 사람을 잡아먹은 곳은 대개 山稜線이나 風水學에서 말하는 "騎龍穴"이 이에 부합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藪地의 대부분이 山稜線에 있는 것을 봐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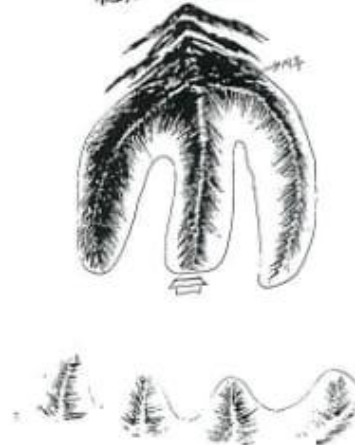
또 다른 이유는 虎食되어 뜯어 먹힌 자리는 죽어서 갈 자리라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예컨대 安東사람이 太白山으로 몰려와서 잡아 먹혔다면 그곳이 죽어서 갈 자리라는 것이다. 죽어서 갈 숙명적인 자리로 선택된 죽음, 시신이 버려진 산등성이, 이런 것들이 虎食터가 明堂이라는 말을 낳지 않았나 생각한다.

文由 된들 虎食터



(그림 1) 文由 된들 虎食터(太白)

德岩 섬배이 虎食터



(그림 2) 德岩 섬배이 虎食터(旌善)

楸洞 바람부리 虎食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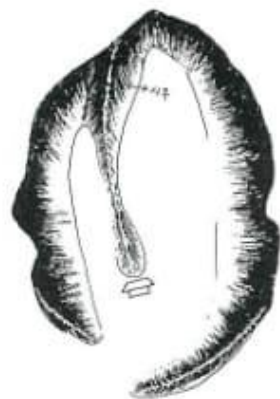
(그림 3) 楸洞 바람부리 虎食터(三陟)



楸洞 바람부리 虎食터



(그림 4) 楸洞 바람부리 虎食터(太白)



新里 전나무골 虎食터

〈그림 5〉 新里 전나무골 虎食터(三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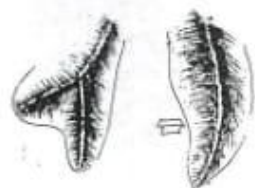


〈그림 6〉 上東 신대골 虎食터(家越)



銅店 사군다리 虎患터

〈그림 7〉 銅店 사군다리 虎患터(太白)



北洞 재미골 虎食터

〈그림 8〉 北洞 재미골 虎食터(旌善)

屈曲龍明堂圖



〈그림 9〉 屈曲龍 明堂圖

우리나라의 代表的인 明堂이다. 누구나 이런 곳을 찾아 조상의 묘를 쓰거나 집을 짓기를 원한다.

IV. 虎患의 克服

虎患의 豫防

범사냥

IV. 虎患의 克服

人間이 맨손으로는 범을 당할 수 없다. 그래서 虎患을 숙명적으로 받아들이며 그 상황을 감수해야 하였다. 그러나 人智가 발달함에 따라 사람들은 虎患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여러가지로 머리를 써서 범에게 당하는 被害를 最小한으로 줄이는데 노력하고 더 나아가 범을 잡아 죽이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나 아무리 범을 잡아 죽여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범을 山神으로 보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그래서 一面으로는 범을 崇拜하며 一面으로는 범에게 대항해 범을 죽이기 까지 하며 虎患을 克服하였다.

1. 虎患의 豫防

범에게 患難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예방이 제일이다. 이두우면 밖에 나가지 않는다는 혼자서 산길을 가지 않으며 어린아이를 집에 혼자 내버려 두지 않는 것 등 등 注意를 게을리하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그래도 범은 언제나 虎視眈眈 사람을 노리고 있다.

山中 마을 사람들은 집 구조를 범이 침범치 못하게 꾸며 놓았다. 虎網이라든가 빗장 등을 쳐서 범이 집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어딘가 부족하여 안심이 덜 된다. 그래서 山에 祈禱하여 마을과 집안에 無事安全을 祈願하는 "산맥이"라는 것이 山中 마을에는 있고, 그 기도(祭祀)를 소홀히 하면 山神이 怒해 虎患이 생긴다고 한다.

人爲으로 保護物을 設置하여 虎患을 豫防하기도 하고 山神에게 빌어 神의 힘으로 虎患을 예방하기도 한다.

1) 虎 網

굵은 밧줄로 망을 엮어 서까래에서 마당으로 늘어뜨려 범이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바닷가가 가까운 곳에서는 고기 잡던 그물을 사용하기도 한다. 날이 밝으면 그물을 말아 올리고 해가 지면 그물을 내린다.

2) 빗 장

보통의 房門은 범이 머리로 박거나 앞발로 치면 그냥 부서져 버린다. 門이 부서지

면 범이 房으로 들어와 사람을 물어간다. 그래서 보통의 房門 안쪽이나 바깥쪽에 별도의 장치를 해서 범이 머리로 박거나 앞발로 쳐도 끄덕없게 하는 빗장이라 하는 것이 있다.

빗장은 두꺼운 나무판자를 門 안쪽이나 바깥쪽에 별도의 홈을 내어 거기에 끼우게 되는 二重門의 役割을 하는 것이다.

낮에는 그 빗장을 빼내어 방안이 밝게 하고 밤이면 빗장을 끼워 범이 못들어 오게 한다. 지금도 太白山의 山中마을에는 그 빗장의 흔적이 남아 있는 집들이 많다.

3) 참나무 장작발

빗장은 끼웠다 뺐다 하는 번거로운 시설이기에 좀더 간편하게 하기위해 참나무 장작발을 쳐 두는 경우도 있다. 직경 5~10cm쯤 되는 참나무를 베어와 방문보다 길게 끊어 발(簾)처럼 엮어 문 밖에 쳐 놓으면 범이 들어오지 못한다.

참나무 장작발은 房門보다 양옆으로 두뼘 정도 더 길게 만들어 문위쪽에 못을 박고 발(簾)을 매어 늘어 뜨리고 아랫 부분을 문 아래 중방에 고정시켰다가 날이 밝으면 門위로 말아올린다.

4) 산맥이

범이 집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빗장이라든가 호망, 참나무 장작발 등을 설치하여 虎患을 막고자 하나 그것만으로는 뭔가 부족하고 安心이 덜 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그래서 年間 날을 잡아 「산맥이」라 하여 山에 祭祀를 올리며 虎患의 豫防을 祈願하는 것이다. 범을 山神으로 모시고 謹身하며 祈禱하고 祭祀함으로써 범에게 患難을 당하지 않는다고 믿는 것이다.

흔히 山을 위한다고 하는 것은 神格化되지 않은 山 그 자체로 보지만 그 裏面에는 범이라는 莫強한 存在가 神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산맥이」를 하는 것은 山神(山君, 범)에게 미리 屈服하여 山神의 心氣를 건드리지 않는다는 뜻이 있고 山神의 마음을 호뭇하게 하여 虎患의 禍를 뚫어 보려는 것이다. 물론 山神(人格화된 神)에게 기도하여 그 使者나 護衛者에 해당되는 범이 해꼬지를 못하도록 해달라는 뜻도 되겠으나 실지 山中 마을에서는 山神과 범을 二元化해서 보지 않는 것이 通例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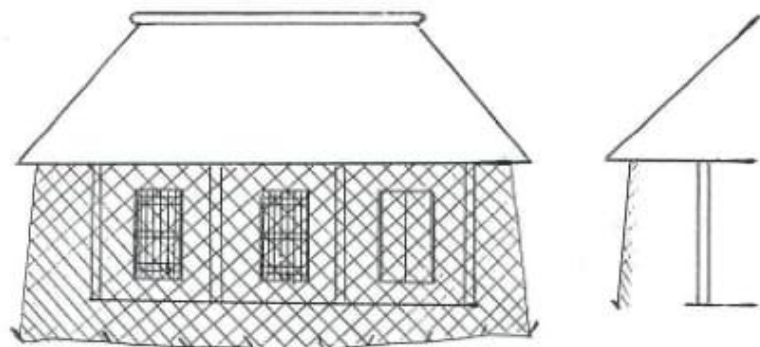


그림 10) 虎網

범이 들어오지 못하게 그물을 치 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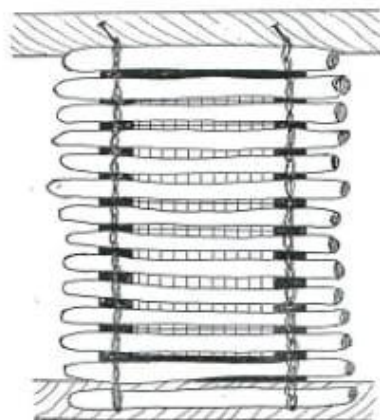


그림 11) 참나무 장작발

굵은 참나무로 발을 위에 문밖에 치 놓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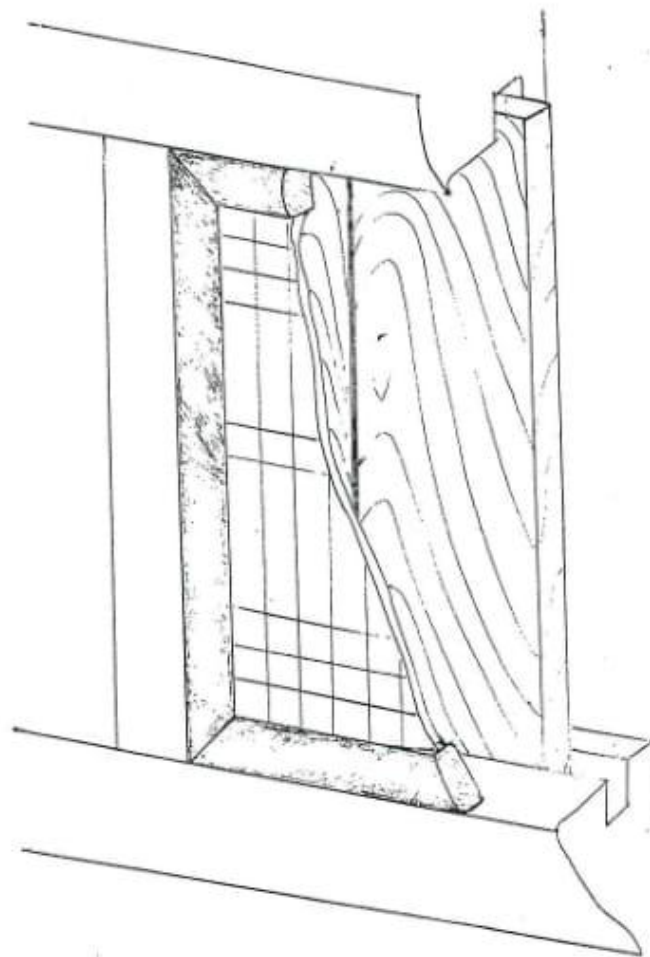


그림 12) 빗점

범이 들어오지 못하게 이중문의 장치를 하였다. 두꺼운 판자로 문 안쪽이나 바깥쪽에 끼운다.

2. 범 사냥

武器가 없는 사람에게 범은 宿命的 먹이사슬의 專橫者이며 神이나 다름없는 절대자이다. 하지만 사람에게 銃이 생기면서 사람의 힘은 萬倍나 세어 졌다고 한다. 손가락 하나 살짝 움직이는 힘으로 커다란 코끼리도 죽게 만드니 말이다.

사람이 虎患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豫防과 「산맥이」를 하기도 하지만 人智가 발달함에 더 나아가 아예 그 禍根인 범을 잡아 죽인다면 이 보다 더 좋은 虎患의 克服은 없을 것이다. 이 땅의 모든 범을 잡아 죽인다면 虎食이니 虎患이니 하는 일은 없을 테니 말이다.

대개 사람을 공격하는 범은 늙었거나 상처를 입은 것들이 많다. 사람들은 범을 잡기 위해 기발한 방법을 다 동원하였으니, 五洲衍文長箋散稿 搏虎辨證說에는 범을 잡는 아홉가지 방법이 나온다.

첫째는 활로 쏘서 잡는 것이며 둘째는 창으로 찔러 잡고, 셋째는 쇠몽둥이로 두들겨 잡고 넷째는 함정을 파서 잡고, 다섯째는 야교를 뿌려 범의 발에 붙게하여 잡고, 여섯째는 총(火砲)으로 쏘서 잡고, 일곱째는 송애칼(손오, 송이)을 설치하여 잡고, 여덟째는 무쇠 장갑을 끼고 범이 물려고 할때 범의 입으로 집어 넣어 범이 덥씩 물게되면 그때 범의 혀를 거머쥐고 다른 손의 칼로 급소를 찔러 잡으며, 아홉째는 산 초나무를 태워 그 연기를 범이 맡게 하면 범의 털이 빠지고 피부가 썩어 죽는다고 하였다(一曰射 二曰鎗 三曰椎 四曰穿 五曰膠 六曰銃 七曰弩 八曰鈎 九曰煎 此搏虎之九術也).

구한말 이후 新式火器가 많이 들어와 위의 아홉가지 방법 말고 간단히 범을 銃으로 쏘서 잡는 바람에 이땅에 범은 거의 씨가 말라버렸고 虎食이니 虎患이니 하는 말도 사라지게 되었다. 여기에서는 예전에 銃이 없던 民間人들이 원시적인 방법으로 범을 잡던 방법 몇가지를 알아본다.

1) 덧

덧은 찌기 또는 철포라고도 한다. 반달처럼 생긴 쇠에 성크런 쇠 이빨이 솟아 있는 두 쪽의 쇠를 벌려 놓아 범이 밟으면 발목이 치이게 된다. 덧을 설치하고 그 위에 흙을 살짝 덮고 가랑잎 등을 뿌려 놓으면 범이 모르고 밟는다.

2) 송 애 칼(송이칼, 손오칼)

길이 50cm 정도 되는 칼이다. 흙사 낮처럼 생겼는데 구부정하게 휘어 있는 칼이다. 다래 넝쿨 같은 것을 들어서 송애칼을 매워 놓는다. 범이 지나가다 평김줄을 건들면 송애칼이 튀며 범의 허리나 배를 쳐서 끊어 버린다. 범이 다니는 길목에 설치

하며 주위에 위험표시를 한다.

3) 갈 티

굵은 통나무를 베어 바닥에 하나 깔고 하나는 비스듬히 세우고 구멍을 파서 걸개를 한다. 범이 지나가다 걸개줄을 건들면 비스듬히 서있던 통나무가 내려오며 범을 치어버린다.

4) 양 티

굵은 통나무를 베어 네 기둥위에 올려 놓고 걸개줄을 가로 질러 놓는다. 그리고 길 양쪽에 말뚝을 박아 다른데로 가지못하게 한다. 범이 지나가다 그 걸개줄을 건들면 굵은 통나무가 내려쳐서 죽는다. 뱀돼지도 걸리고 기타 여러 짐승도 걸려든다.

5) 벼 락 들

굵은 통나무를 베어 뿔처럼 만들어 45도 경사로 세운 뒤 벼땀목으로 받쳐 놓고 그 위에 돌이나 통나무를 많이 올려 놓고 쉼돌 등으로 묶어 놓는다. 그리고 그 밑에 고기덩이나 뼈등을 베어 달아 놓으면 범이 그 먹이를 먹으려고 물고 당기면 벼땀목이 빠지며 돌이 내려앉아 압살되고 만다.

6) 최질구멍이(함정·허방다리)

범이 다니는 길목에 5~6m 깊이의 구멍이를 파고 바닥에 나무를 뽕죽이 깎아 박아 놓는다. 나뭇줄 뽕죽이 깎아 바닥에 박는 대신 통나무를 X자로 세워놓기도 한다. 구멍이 넓이는 4m정도이며 그 위를 가는 나무로 열기설기 가로 질러 놓고 풀을 한 다음 흙을 살짝 덮어 놓는다. 지나가던 범이 빠지면 나오지 못한다. 또는 함정을 좁게 판 다음 그 속에 돼지새끼나 염소 등을 집어 넣어 놓으면 범이 들어간 다음 나오지 못한다.

7)告 祀

덧을 놓는다 송애칼을 설치한다 해도 범을 잡기는 힘들다. 그 날세고 용맹한 범이 덧이나 함정에 빠지는 것도 神의 造化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사람이 설치하는 각종 물 만으로는 안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벼락들을 설치해 봐도 영험한 범이 다 알고 있기에 절대로 치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어쩌다 치이는 범은 神으로 부터 버림받은 것이라 한다.

50여년전 太白市 銅店洞에 밤마다 범이 나타나 작폐를 하는데 동네에 가족이 남아 있는 것이 없었다. 慶北 奉化郡의 石浦, 大靑 등지와 江原道 太白市 銅店洞 등 인근 40여리의 마을이 모두 피해를 입었다. 동네의 개와 돼지는 물론 송아지까지 물어가고 숲고개에서는 시집갈 나이의 다 큰 처녀를 물어가 잡아 먹었다. 동네 어른들이

모여 회의를 한 결과 山神의 탈이라 하여 蓮花峰 山祭堂에 告祀를 하였으나 범의 作弊는 계속되었다. 하는 수 없이 마을의 어른들이 모여 다시 회의를 한 끝에 이 일은 山神께 빌어 될 일이 아니니 天祭를 올려 봄이 올듯 하다 하여 蓮花峰 山祭堂 위쪽에 있는 天祭壇에 올라가 天祭를 올렸다. 정성껏 술을 빚고 소를 잡아 告祀를 올린 후로는 범의 作弊가 없어져 버렸다.

마을 사람들은 神通하게 생각하고 天祭의 效驗을 믿으며 한숨을 돌리게 되었다. 몇달후 마을 사람이 마을에서 20여리 정도 떨어진 해삼이골에 나물 뜯으러 가니 벼락들이 뒤었는데 범이 치어 죽어 가죽만 남고 썩어버린 것을 발견했다. 그 벼락들은 뗏돼지를 잡으려고 설치한 들로서 다 썩은 소 뼈다귀를 매어 달아 놓는데 그 범이 뭐 먹을것이 없어 다 썩어 살도 한점 안 붙어 있는 뼈다귀를 먹으려 물고 당기다가 치어 죽은 것이다. 비슷한 시기에 전부남터의 돼지들에도 또 한마리의 범이 치어 죽어버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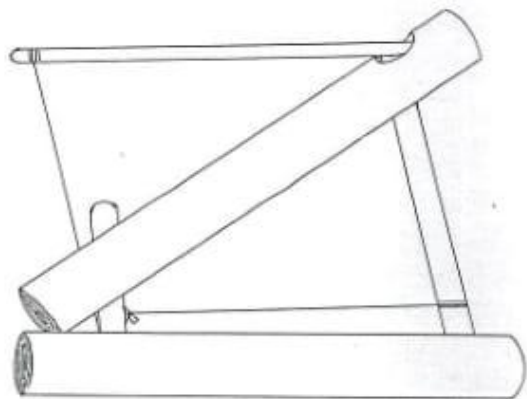
마을 사람들이 말하길 그 범들은 神의 罰을 받아 죽은 것이라 했다. 벼락들에 치어 죽을 범이 아닌데 치인 것은 神이 그 범을 버린 것이라는 것이다. 범도 人畜에 이 유없이 害를 주면 神이 버린다. 銅店洞의 경우는 山神에게 빌어도 안되니 그 보다 더 높은 天神에게 빌어 山神을 懲戒한 것이라 본다. 銅店洞 蓮花峰의 天祭壇은 山위에 있고 山아래에는 山祭堂이 있다. 여기에서도 뽏은 山神의 使者나 호위자가 아니라 山神 그 자체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범을 잡는대도 순수하게 사람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으며 神의 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범을 잡는 들은 사람이 설치하지만 그 들에 범이 치이도록 유도하는 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어떤(神) 힘이 작용해야 한다고 믿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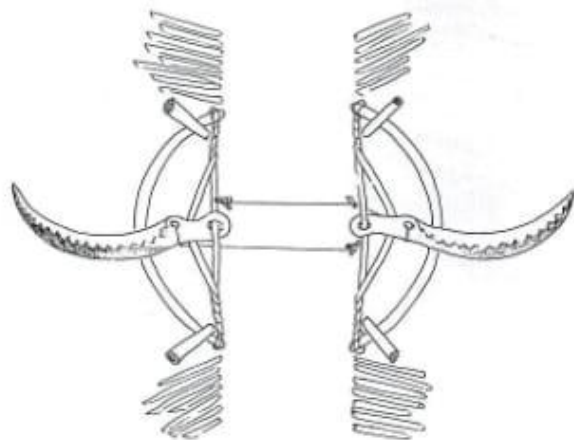
〈사진 30〉 양티

짐승을 잡기 위해 설치한 들, 돼지든 범이든 노루든 들어가면 죽는다. 힘이 썩어 내려 앉았다.



〔그림 14〕 갈티

줄을 건들면 위의 통나무가 내려와 치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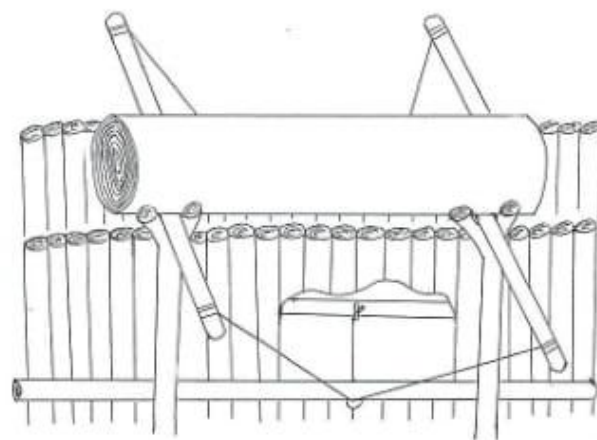
〔그림 15〕 송애갑(송이갑, 손오갑)

짐승이 지나가다가 빙깁줄을 건들면 칼이 뛰며 짐승의 허리를 자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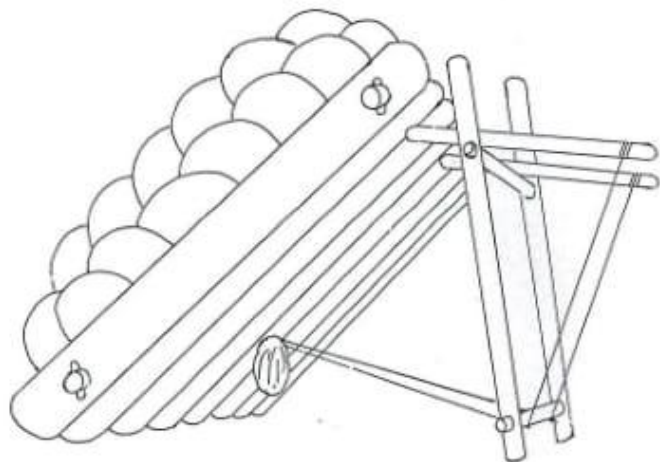
〔사진 40〕 양티

범이나 곰, 돼지 등을 잡을 때 쓰는 것으로, 삼프런 이빨이 발목에 들어가면 빠져 나올 수 없다. 길이 1m 정도.



〔그림 13〕 양티

짐승이 들어가면 못 나온다.



〈그림 16〉 버락들

먹이를 건들면 틀이 내려앉아 압살된다.

參考 및 引用圖書

- 燕巖集(朴趾源)
- 松南雜識(趙在三)
- 芝峰類說(李時光)
- 星湖僊說(李震)
- 五洲衍文長箋散稿(李圭景)
- 東國歲時記(洪錫謨)
- 洺陽歲時記(金邁淳)
- 永嘉誌(權紀)
- 三國遺事(一然)
- 한국호랑이(김호근, 윤열수)
- 朝鮮民俗(손진태)
- 朝鮮民俗誌(秋葉 隆)
- 蒙古草原(米內山 庸夫)
- 漢字大典(李家源, 張三植)
- 海東異蹟(洪萬宗)
- 東國輿地勝覽
- 增補文獻備考
- 太宗實錄
- 中宗實錄
- 英祖實錄
- 聽雨記談
- 本草綱目
- 易經
- 詩經
- 道德經
- 青烏經
- 踏山歌
- 격동의 구한말 역사의 현장(주한 프랑스문화원)

虎食葬 調査에 對談하여 도움을 주신 분들

・千夢根	80	己酉	太白市 銅店洞	1-7
・朴道三	80	己酉	太白市 鰲川洞	6-1
・鄭正守	78	辛亥	太白市 鰲川洞	6-1
・張允石	78	辛亥	太白市 黃池1洞	1-3
・張守元	81	戊申	太白市 蓮花洞	소란
・沈元伯	77	壬子	太白市 文曲洞	6-1
・金福守	68	辛酉	太白市 長省洞	6-1
・李在敦	81	戊申	太白市 禾田一洞	9 창죽
・千命玉	63	丙寅	太白市 禾田二洞	5-4
・鄭然式	78	辛亥	太白市 銅店洞	1-6
・金計호(女)	54	乙亥	太白市 鐵岩1洞	1-6
・千英子(女)	60	己巳	太白市 鐵岩1洞	1-5
・禹守岩	86	癸卯	太白市 所道洞	11-2
・沈相運	55	甲戌	太白市 銅店洞	7-3
・朴星熙	83	丙午	旌善郡 東面 北洞里	3班
・崔燦烈	69	庚申	旌善郡 東面 書岩里(과사리)	
・李桂蓮(女)	64	乙丑	旌善郡 東面 北洞里	3班
・裴士元	67	壬戌	旌善郡 東面 書岩3里	1班
・신학목	80	己酉	旌善郡 南面 樂洞	3里
・張憲鎭	75	甲寅	三陟郡 遠德邑 杜川1리	4반
・金演赫	73	丙辰	三陟郡 遠德邑 杜川2리	4반(복다랭이골)
・鄭範謨	80	己酉	三陟郡 遠德邑 杜川2리	4반
・鄭永福	83	丙午	橫城郡 甲川面 上台里	2반
・姜月梅(女)	81	戊申	寧越郡 上東邑 九來	14里
・金道吉	80	己酉	寧越郡 上東邑 江東里	
・金娘伊(女)	74	乙卯	寧越郡 上東邑 江東里	
・方金雲(女)	74	乙卯	寧越郡 上東邑 九來	15里
・金達洙	54	乙亥	奉化郡 石浦面 大峴	3里 11반
・田花子(女)	52	丁丑	奉化郡 石浦面 承富里	7반
・盧京澤	60	己巳	奉化郡 石浦面 承富里	마무이

・南淳鎭	62	丁卯	奉化郡 小川面 汾川里	각금
・朱振童	68	辛酉	蔚珍郡 西面 前谷里	전내
・金玉金(女)	72	丁巳	蔚珍郡 西面 前谷里	원곡
・方順極	70	己未	蔚珍郡 西面 前谷里	원곡
・權潤燮	74	乙卯	旌善郡 南面 廣德	1里
・趙鳳雲	70	己未	旌善郡 南面 武陵	1里 3반
・朴泰業	75	甲寅	旌善郡 南面 武陵	2里 2반
・崔간남(女)	64	乙丑	旌善郡 南面 飯山里	4반
・安지호(女)	71	戊午	旌善郡 臨溪面 總岩里	6반
・孫元子(女)	74	乙卯	三陟郡 下長面 楸洞里	4반
・李道弘	57	壬申	三陟郡 道溪邑 新里	3반
・姜鳳文	77	壬子	三陟郡 道溪邑 新里	5반
・金龍培	51	戊寅	三陟郡 道溪邑 新里	5반
・張福男(女)	52	丁丑	三陟郡 道溪邑 九士里	2반
・金在玉(女)	67	壬戌	三陟郡 耑老面 下士田里	2반
・金丙雨	61	戊辰	三陟郡 道溪邑 馬次里	연화곡
・金東洙	65	甲子	三陟郡 遠德邑 祀谷	1里 5반
・崔永熙	78	辛亥	三陟郡 遠德邑 祀谷	1里 5반
・鄭然鳳	64	乙丑	三陟郡 柯谷面 湯谷里	4반
・閔丙國	83	辛戌	三陟郡 柯谷面 湯谷里	4반
・金淳河	69	庚申	三陟郡 柯谷面 梧木里	1반
・姜鳳仙(女)	67	壬戌	三陟郡 道溪邑 桃源洞	8반

虎食葬

저자 金剛山

발행일 : 1988년 12월 23일

발행인 : 張仁源

발행처 : 太白文化院

附設 太白鄕土史研究所

인쇄 : 江原日報社

※ 無斷複製·轉載를 禁함.